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政府軍全線에進擊 續續各地를奪還

叛軍政權잇는부市로迫到

西班牙動亂形勢顚倒

【산탄데르廿九日發同盟】西班牙戰況은 俄然 政府軍에 有利하게 展開되여 叛軍政權의本據부르고스市에 進擊하고잇는바 到處에서 叛軍을 擊破하고 廿八日午前 숩시리오村은 부르고스市에서 떠나기 겨우 六十五哩地點에잇는바 逆睹키難한 形勢이다 過去三日間의 戰鬪에잇서 叛軍側의戰死者는 三百에達하고 十五名이捕虜되엿다 그리고政府軍은 機關銃三挺、小銃七十挺外 多數의武器彈藥을 鹵獲하엿다

【마드리드二十九日發同盟】政府軍義兵隊는 二十九日未明 大學區에서 叛軍을砲擊하야 對壕構築을 阻止하는同時에 機關銃隊는 만사나레스·데로스·프란세스橋附近에 來襲한 무어族騎兵部隊에 猛射擊을加하야 其進擊을 阻止하엿다 一方政府軍飛行機는 夜來의豪雨를무릅쓰고 마드리드上空에 [illegible] 나타내여前線을 向하야 飛去하엿다 政府軍步兵隊는 全線에亘하야 攻擊으로轉하고잇는바 과다라하라戰線에 잇서서는 산토리스、로브레달야스、프라과스等各村을 奪還하고 세빌리아市를 肉迫하고잇는바 더욱 타구스地의攻擊에 奏效되는模樣이다 砲兵隊는 라라베라叛軍集結部隊에 猛烈한 砲擊을加하야 漸次 都門으로迫하고잇스며 산탄데르 아스토리아스兩地方의 政府軍의攻擊은 着着 奏效되여 叛軍을 到處에서 擊退하고잇다

西政府提訴認定 緊急理事會召集

事務總長、日字를各國에照會

【쥬네브廿九日發同盟】聯盟은西班牙政府의 要請에基하야 緊急理事會를 召集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事務總長아브놀氏는 二十九日午後 聯盟理事國十五政府에 對하야 緊急理事會召集日字에關하야 左와如한 質問을發하엿다

國際聯盟은 西班牙政府의 提訴에基하야 緊急理事會를 來十二月七日 或은 十四日에 理事會를 召集할 意向인데 兩日中 何日이 조흔가 十二月一日까지 貴國政府의 希望을 回答하기바란다

獨伊態度가問題

【쥬네브二十八日發同盟】西班牙政府提訴에依한 聯盟緊急理事會는 來月二日開催하기로 決定되엿는데 理事會開催에 際하야 獨伊兩國代表招請問題가 難關으로되여 種種論議되고잇는 模樣이다 多數意見은 聯盟脫退委員會가 十二月六日부터 열리므로 此와併行하야 理事會를 여는것이便宜하다고한다 그리고 西班牙政府의提訴는 獨伊本國政府의 內亂干涉을 主要項目으로하고잇는關係上 理事會가 第一로 上程할問題는 獨伊兩國政府代表의 派遣을 要請할與否를 決定할것이다 萬若獨伊兩政府에 代表出席을 要請할境遇 兩國政府는 不干涉委員會가 目下倫敦에 열리고잇스며 兩國政府도 이에代表를 보내고잇슴으로 倫敦에 여는것이 兩國政府의 受諾을 求하기容易하다하는바 聯盟當局은 會場決定에對하야는 理事會 議長에드와

膨大한豫算에對해 政友痛擊을準備

七十議會一波瀾豫想

【東京電話同盟】三十億四千萬圓 歲出豫算에對하야 政友會에서는 明年度膨大豫算에對하야 歲入歲出兩方面에 多大한 難色을 示하야 馬場財政을 痛擊할터로 第七十議會에 重大한 波瀾을 豫想케하고잇다 即 明年度豫算은 通觀하면 其編成은 全然指導精神을 缺하여잇고 戰時財政을 口實로 國防費를 中心으로한 國費의 膨脹에迎合追隨한것이다 其結果 財政上 破綻을 [illegible]한것이라고 認定하고 黨意를統一하야 馬場藏相의無責任을 非難하고잇고 따라 議會에잇서서 論議는當然明年度豫算의 全般에 亘하야 稅制改革 其他諸案件에 對하야 嚴格한 修正을 敢行할事態에 直面하지안흘가 豫想된다 그리고

一、歲出關係에잇서서는
一、豫算의 遂行性問題
一、公債消化의問題
一、인프레及物價騰貴問題
一、欺瞞的社會政策
一、地方財政調整交付金等諸問題를 追及하야 馬場財政의追隨[illegible]의 本質을 餘地업시 爆露할것이라한다 一方 歲入에關하여는
一、稅制改革案 特히 實上稅 財産稅의 [illegible]又는 大衆稅
一、租稅自然增收 [illegible]의 追及
一、公債政策과 金融統制等諸點을 論議에 供한後 實上財産稅의 [illegible]로부터 生하는 減收及歲入豫想의 訂正으로부터 生하는 減收 又는 公債로써 充當할것이라하야 歲入減額修正을敢行할 決意를 鞏固히 하고잇슴으로 豫算案이 衆議院을 通過할 最後의 瞬間까지 緊張한場面이 繼續되리라고 觀測되다

社大黨의對議會策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은十二月下旬에 開催될 社大全國大會를 契機로 第七十議會對策에 備하야 政治鬪爭을 開始할意氣를 갖게되엿는데 지난特別議會에 잇서서는 院內鬪爭에 너무偏重하엿든 傾向이 잇는데鑑하야 第七十議會에서는 院外鬪爭을 重視하고 日本勞働總同盟 全國農民組合等 外部團體와의 緊密을 圖하야 大衆課稅에 依한 增稅 [illegible]의跛行 膨脹豫算 [illegible] 金[illegible]等의 大幅引上에 依한 大衆負擔의增加、地方 中央行政機構改革 議會制度改革에依한 旣成政黨의 欺瞞的態度를 糾彈하고 外交財政問題에 잇서 軍部 官僚의 秘密獨斷性을 警告할準備를 整頓하고잇다 一方 勞働組合은 組合法 農民組合은 小作法獲得을 目標로 院內外가 呼應하야 大衆運動을 惹起하기로되여잇다 그리고 戒嚴令下의 特別議會의 境遇와달라 第七十議會는 比較的大衆運動이 容易할으로 今議會에잇서서는 院外鬪爭의 威力을 發揮할수잇스리라고 期待하고잇다

懇談會에는 梅津次官도出席

【東京電話同盟】來月二日首相官邸에서 行하게된 寺內陸相과議院制度調査會委員과의 懇談會에서 寺內陸相은 軍의抱懷한目標에對하야 卒直히 그所見을 披瀝할豫定인데 右懇談會는 非公式會合임으로 梅津次官도 陪席하기로될模樣으로 政府側과協議中이다

根本方針은不變

民政黨의對議會態度

【東京電話同盟】第七十議會招集을 前迫되여 民政黨에서는 首腦部間에서 今後의 對策에對하야 意見交換을 試하고잇는데 同黨으로서는 [illegible]一致方針에서 櫻井 小川兩顧問等을入閣식힌以上今議會에서도 可及的現內閣에 協力하야 難局打開에 當하려하는 大綱方針에는 別段 變함이업스나 黨內에는 前議會以來 [illegible]一新에 關한 現內閣의 施設及廣田首相의 態度에 對하야 漸次不滿하는 空氣가 濃厚하게되는 傾向이 잇서 나아가서는 豫算案을 비롯하야 重要議案審議에 當하야 이 空氣가 反映되여 前議會以上으로 [illegible] 且深刻한 質問戰이 展開되여 相當히 波瀾을 免치못할形勢이다 即今後當然問題될 主要案件을 擧하면 大體로如左하다

一、豫算案에對하여는 主로 國防費를中心으로 今後財政計畫에對하야論鋒을 向하게될것임으로 財界不安을 惹起하야 將來財政計畫上 자못危險하다는 見地에서 到底히 無條件으로 承認하지안흐리라는 意向이强한模樣이다

一、增稅問題는 特別委員會를設置하고 審議를 繼續하고잇스나 아직地方稅問題를 筆頭로 實上稅 財産稅等에 對하야異論이만타 따라 議會에서는此等이論議의 焦點이되여 境遇에따라서는 多少의 修正은免치못할模樣이다 그러나 其修正은 實際上 相當히 困難한 點도잇고 또 其結果는 그만콤 公債의 增發도될으로 黨議가 修正論에 落着될는지 엇절는지는 갈작이 豫測이서지 안는다

一、電力統制問題에 對하여는 目下 特別委員會에서 [illegible] 審議中이나 議員이 續出하야 決定되지못하고 結局 議會까지 遷延될것이다 議會對策으로서는 第一에 政府原案을 多少修正할는지 第二에 困難한境遇에는 原案贊成으로 討議를 끗막을는지 第三에는 大修正으로써 國有國營案으로 될는지 三途가 잇슬뿐으로 모다 紛糾가 豫想된다 特히 第三의 境遇에는 政府와의 正面衝突을 豫想하지안흐면 안될것인바 黨出身閣僚인 賴母木遞相의 面目에도 關係됨으로 同問題에는 가장머리를 알코잇다

一、外交問題는 對中、對蘇、英國關係를 中心으로 相當히深刻한 質問이 續出할터이다 이박게 總督制度改革에 關한 軍部와의 問題及 中央行政機構改革 地方制度改革等에 關하여도 當然政府의 所信을 究明하게될것이다

墺、匈兩政府도 共産主義撲滅

匈牙利代表談

【羅馬二十八日發同盟】匈牙利代表드캉야氏는 二十八日 羅馬出發에臨하야 左와如히말하다 日獨防共協定에對한 歐洲主要國政府의 態度는 아직豫測키 어려우나 伊太利政府도 墺太利匈牙利兩政府와 同樣共産黨에反對의 態度를 取할것을 思料하여서는 아니된다 我等은 恒常共産主義撲滅의用意가잇다

佛陸相平和演說 暗然히日本揶揄

黃色人이西歐文明擁護絶叫한다고

【에빌二十九日發同盟】佛國陸相 달라지에氏는 二十九日 巴里西方에빌市에서 열린 急進社會黨支部晩餐會席上에서 一場演說을試하야 我等은 주제넘게도 西歐文明의擁護를 부르짓는 黃色人種의 [illegible]한소리를 드르나 我等의義務는 全人類에 對하야 軍備競爭은 文明의破壞를 意味한다는것을 알리어잇다 佛國은 物質的으로나 道德的으로 强力하지안흐면안된다 고 暗暗히 日本을 揶揄한後 左와如히述하엿다

無秩序와 데마는 共和國과 데모크라시의 敵이다 새로운社會秩序는 佛國人同志間의 平和를 强調하지안흐면 안된다 히틀러는 獨逸社會主義共和國의 破壞後에 나타낫고 伊太利의 데모크라시는 뭇소리니의 獨裁政治에依하야 潰滅한 事實을 諸君은 銘記할것이다 國內平和는 社會進化의 必須條件이나 그보담도 더욱重要條件이잇다 그것은 國際平和이다 今日의 平和樹立는 [illegible] 이를엄출수업는 狀態이다 我等은科學이 現實을 開化케한 時代에 居住하는者로 我等이 解釋할 主要한 問題는 物質의 分配이다 我等은 利益업는鬪爭에몸을 던지지말고 我等의英氣를 이問題에 바치지안흐면 안된다

大冶鐵山襲擊을警戒

【漢口卅日發同盟】大冶南方三哩地點에 匪賊約二百이 突然出現하야 大冶鐵山襲擊의氣勢가濃厚하다는 旨의急報에接하야 當地○○中의○○○○○은 昨夜○○○非常召集을實行하고 卅日午前一時半大冶에急行하엿다

伊、滿洲國承認에 中國側一層憤激

各紙、暗然히英米蘇等各國과의提携를强調

國府、數日中否認聲明

【上海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의 滿洲國承認은 日獨防共協定으로興奮된 中國에一層刺戟을與하야 國民政府外交部는 一兩日中에伊太利의態度를 非難하야 滿洲國承認을認定치안는다는 意外正式聲明을 發表할 模樣이다 中國各紙는 모다 伊太利의 滿洲國承認의、外國電報를 大大的으로 揭載하고 더욱滿洲國不承認의 聯盟決議도 聯盟의決議와 中國의主權을모다 侵害한 行爲라고 憤慨하고잇다 그리고 日獨伊의 三侵略國이 聯合을形成한以上은 中國과如한 弱少國은 其犧牲에 供케될것으로 此際 速히 友好國과結托하야 侵略者의犧牲으로부터免할것이라고 暗暗히 英米蘇聯各國과의提携를 强調하고잇다 그리고 駐中伊太利大使로자코氏는 卅日 張群外交部長을訪問하고 伊太利는 滿洲國에 公使館을 設置하야 이를正式으로 承認하는것이아니라 다만 領事館을 設置하야 通商上의便宜를 圖하려함에 不過하다는旨를 聲明할터인데 中國側은 官民할것업시 極히感情的으로되여잇음으로 或은 何等의 形式으로 伊太利에對하야 報復的措置를 取하지나안홀가 觀測된다

駐中伊大使 張部長에게說明

【上海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의 滿洲國承認에 對하야 國民政府外交部는 外交部上海辦事處를 通하야 伊太利大使館에 眞相을 照會하야잇는바 駐中伊太利大使 로자코氏는 二十九日午後十一時 上海發 夜行列車로南京에 赴하야 三十日午前外交部長張群氏를 訪問하고 伊太利의 滿洲國承認에關하야 正式으로 說明하기로되엿다

獨伊에對抗하야 英佛同盟을希望

佛首相、民主國家結合을企圖

【巴里二十九日發同盟】佛國政府는 獨伊兩國을 中心으로한 新事態에 處하야 佛國의 安全保障을 確立할 新外交政策을 考究中이다 消息側의 말에依하면 블룸首相은 國際聯盟이 完全無力化하고 또로카르노會議에 獨伊를 參加케하기는 거이不可能한 今日의狀態에잇서서는 民主主義國을 結合하야 獨伊블럭에 對抗할수박게업다는 結論에達하야 對英關係를 强化가萬若 可能하면 英佛同盟締結을企圖한다고 한다 블룸首相은더욱 米國으로부터 적어도 道德的支持를 獲得하기를 希望한다고 言하는데 블룸首相의 大演劇이 果然成功할는지 佛國의外交動向은 英米態度와함께 注目을 끌고잇다

八面鋒

日獨伊 三國에 領土를 再分割시키라든 하우스大佐、이번에는 日獨日伊協定에 警戒의 忠告。

◇

日、日獨伊가 合縱을하면 英佛米蘇의 連衡은 必然의勢、四國同盟에 三國이 當할소냐고。

◇

獨伊의 提携는 英佛을 接近、日本의 雄飛는 英米를接近。

◇

英國◇ 아무리 老帝國이라하지만 一年以內에 海軍力을充實可能、米國 아무리 平和的이라 하지만 古來로 好戰的。

◇

歷史는 反復、히틀러、뭇솔리니는 第二의 나폴레옹一世가 안될것이냐고。

◇

政局은 보는사람의見地에 따라 相異、누가 [illegible] 豫言하리오。

◇

長老級 七十後 明春부터 廢止한다고。

◇

怪文書의 所信如何는 莫論코、[illegible]만은 愛惜。

話題解說

바르셀로나港 封鎖問題

獨伊兩國政府로부터 正式承認을받은 西班牙叛軍政府는그 [illegible] 프랑코將軍의 名義로 지난十九日英國政府에 對하야 政府軍에의 軍需品供給을 阻止코저 不遠間바르셀로나港封鎖를斷行하겟다고 通告하엿다그리지안하여도 西班牙의內亂은 歐洲諸國을 파시즘國家와 民衆戰線國家에 나누어 서로對立케하야 叛軍이勝利를 하느냐？政府軍이勝利를 [illegible]하느냐？하는 問題는 [illegible]보담도 民衆戰線이 勝利를 할것인가의 前哨戰인同時에第二歐洲大戰의 導火口가될것이라하야 世界의 耳目을集中하고잇든이때에 獨伊兩國政府의 正式叛軍政權承認과 아울러叛軍政府의 바르셀로나港封鎖通告는 實質的으로 西班牙內亂問題가 國際紛爭으로 進展하는契機가 되지안흘가하는憂慮가 업지안케되엇다

그러면 封鎖라는것은 國際法上어떠한 意義를가진것인가？

封鎖라는것은 交戰國의一方이 敵國의 沿岸과 및港灣의海上交通을 遮斷하야 軍事上의 [illegible] 抵抗力을 [illegible]식히려는것으로 中立國의 船舶에 對한 [illegible] 國際同盟[illegible] 비저내게되는만큼 封鎖[illegible]所와밋時日을 各國에 通知하여야된다 封鎖에 關하여는 英國主義와 佛國主義가 [illegible]만아니라 學說도區區하나 一八五六年의 巴里宣言 및 一九○九年의 倫敦宣言에 依하야 封鎖는 반다시 實力으로써하되 封鎖를斷行하는 國家또는 그 일홈으로 行動하는 海軍官憲은 封鎖開始日字 封鎖地域의 地理的限界 中立船舶에 許容할退去期間을 宣言하는同時에 一一히 通知하여야[illegible] 하다

封鎖에는 [illegible] 侵入[illegible]封鎖違反과 出港封鎖違反의 두[illegible]가잇서 封鎖[illegible] 任務를가진 封鎖艦隊는 實力으로써 違反行爲를 [illegible] 船을拿捕하고 그貨物은 原則的으로 이를沒收하게된다

叛軍政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港封鎖를 [illegible]것은 政府軍에對한 各國의 [illegible] 供給을 阻止하려는것인데 이通告를바든 英國政府는 卽時西班牙駐剳大使[illegible]氏에게 [illegible]令하야 叛軍政府에 「英國政府는 叛軍政權을 아즉 交戰團體로서 承認치안코 [illegible]에서 [illegible] 承認치안는다」는 [illegible] 表示케하는同時에 地中海[illegible]艦隊를 西班牙로 出動케하엿다 그러고 佛國政府도 英國政府와[illegible] 協議한結果 西班牙政府軍및叛軍 雙方을 모다交戰團體로 認定치안코 西班牙領海에 잇서서는 勿論 領海外에서도 自國商船을 實力으로 保護할方針을 表明하고잇다 이英佛의 [illegible] 態度를 [illegible]하고 叛軍政府는封鎖를 斷行할수잇슬가 그외背後에는 獨伊兩國이 支持하고잇는만큼 더욱注目을 끌게된다

(成仁基)

「千歲」進水式

【吳電話同盟】日本海軍이 全智를짜서 昭和九年 十一月以來 吳海軍工廠에서 建造中의水上機母艦 「千歲」(一萬噸)는 起工以來 二個年餘의歲月과 延工員人의 從業員이 獻身的努力한結果 工事가 順調로 進捗되여 僞條하옵게도 御名代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의 臺臨을仰하야 永野海相 林第五艦隊司令長官以下 一千名及 觀衆七萬人參集下에 二十九日午前九時四十五分 嚴肅하게 進水式을擧行하엿다 水上母艦 「千歲」는 최初부터 特務艦으로 設計되어 [illegible] 搭載하고잇스므로 能率의 二艦가잇는데 現在能登呂 神威의二艦가잇는데 千歲는 最初부터 水上機母艦으로서 設計된것인만치 海上移動 格納庫도 充分히裝備하엿스므로 機能完成하는날은 最新銳水上機母艦으로서日本海軍에 一大威力을 加하기로될것이다

伊首相、明春에 匈、墺等을訪問

【羅馬二十九日發同盟】消息通에 入報한바에依하면 뭇솔리니首相은 明年一月부터二月까지의 期間內에 부다페스트維也納을訪問하고匈牙利攝政 홀테이殿下、墺太利首相슈슈니크氏 히틀러 獨大使폰·파펜氏等과重要會談을 遂行할 豫定인데 右會見時羅馬駐剳墺太利大使館에서도 이보도를 部認하는 것이라고觀測된다

臨時局長會議

豫算折衝은順調 產調會는極好評

大野政務總監의陳述內容

總督府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第二會議室에서 臨時局長會議를 開하엿는데 席上大野總監으로부터 日獨防共協定及 內蒙古와綏遠間의 紛爭에 關하야 懇談이 잇섯다 이어서 大野總監의 東京中에 明年度豫算折衝은 極히圓滑히 進捗하엿는데 最後的決定은 十二月末이될터이다 大藏省의 要求와가티 承認될것이다 又明年度에는 各種事業이 着工되는關係上 南鮮地方은 勞働力의 不足을 告할念慮가 잇슴으로 全朝鮮의勞働力의 調節을 計畫中이다 特히慎重한計畫下에 處하고십다고 陳述하고 又一面 產業開發에 對하여도 產業經濟調査會의 成案에對하여서도 日本內地에서도 非常한 好評을얻고잇다고 陳述이 잇섯다 이어서 必要가잇는 希望意見을 陳述한後 三橋警務局長 富永學務局長으로부터 所管事務의 報告가잇섯고 鐵道局長代理 荻原庶務課長으로부터 明一日부터 全朝鮮의列車다이야의 大變更을 斷行한다 特히 京釜間의「아가쯔기」運轉은 朝鮮鐵道史上劃期的의것이다

又滿浦線順川 新設區所도 明一日부터 開通한다고報告 增永法務局長으로부터 全朝鮮刑務所에서 囚人敎化用의「라디오」의 利用을 더 擴充한다고 陳述 矢島農林局長으로부터 米穀自治統制管理委員會의組織에關한 協議狀況을報告 外事課長代理 宋事務官으로부터 滿洲의朝鮮農民의窮狀과 穀價下落에 依한救濟를하기爲하야 約八十四萬圓의低利資金을 融通하여 正租의貯藏을 獎勵하엿다고報告 柳生內務局長代理로부터 風水害應急施設은 順調로 [illegible] 工事中이며 [illegible] 四十七[illegible]의 [illegible] 二月二日까지 [illegible]行하게되엇다고報告 山田[illegible]局長으로부터 [illegible] 實에 依하야 [illegible]도 [illegible]하야 [illegible]에 [illegible]를 [illegible]하고 [illegible] 特히 工業[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illegible] 明하고 人事[illegible] 後의 [illegible] 告가잇슨後 [illegible] 散會하엿다

綏遠軍撤退要求

【北平二十九日發同盟】內蒙軍은 綏東 綏北兩戰線에 亘하야 全面的反抗準備를 終了하고 防共自治軍司令王英氏는 二十六日商都에서 軍事會議를 開催한後 二十八日에 土木爾台의 綏遠軍에 對하야 『二十四時間以內에 撤退치안흐면 飛行機로써 爆擊하겟다』고 要求한바 잇섯다

人事·集會

▲丹下郁太郎氏(警務局保安課長) 滿洲出張中二十九日歸任
▲磯田周一氏(遞信局 保險監理課長)新任人事次來社
▲中村敬太氏(京城 貯金管理所長)新任人事次來社
▲朴炳信氏(天道敎靑年同盟本部書記長)敎務督勵하고 平安道地方巡廻向發
▲佐佐木直司氏(京城郵便局通常郵便課長)新任人事次來訪

時計材料附屬品眼鏡
(卸商)
一新舍
京城御成町一〇七
電本一八五

眼鏡은東亞醫院
眼科.齒科
專門 檢眼
京城 電光二四三六番 鍾路

株劵喪失公告
一、當會社株式拾株券六枚 自第八七號至第八三號 鄭寅義名義右株劵喪失ノ旨屆出アリタルニ付無効トス若異議アル向ハ昭和十二年一月二十九日迄ニ申出相成度公告候也
昭和十一年十一月二十八日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大阪天王寺のシムシクダシ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회충제약
珊瑚荳涅菓子
산토닌과자

恩給 年金 恩給及債權擔保 低利立替新 京城府 [illegible] 鄭商會

梅毒 淋病 (專門) 千工京城醫院

書籍
新舊及新古書籍販賣取扱 [illegible] 新式辭典(總革一五四版)定價二圓 [illegible] 地方代金引換
京城府明倫町三丁目六七
東洋閣
振替京城一五七五一

朝報案內

獵犬 番犬軍用犬 大産地出張特賣
[illegible] 大俱樂部出張所
黑 太 溪 堂

急募 (男女社員)身體强健
二十才以上 男女 [illegible]
有意者는 履歷書持參 每日午前中來社
京城府 [illegible] 大東醫藥研究所

德兄 琦弟

迷然朝鮮出版界言風靡하는 朝鮮文學全集
每冊一圓 送料八錢 內容見本 地方分實所規定 代進號
第一配本 時調集 再版出來
第二配本 小說集 大好評增刷
第三配本 歌詞集 方今發賣中
京城府安國町一五三 中央印書館 振替京城一二一七八 電光二二五九五

營業科目
洋髮 洗髮 美顔 美顔術 毛生 電氣 美爪術 버-아-마넨트 結婚化粧
중앙미용원
中央美容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四
(대광교천변) 電本(2)四七四二

一點非無한 最新型 センター 스토-브
有煙○の無煙

贈答品에는 明治の菓子
明治製菓株式會社

急告
全鮮콜럼비아레코-드販賣店各位
今般콜럼비아레코-드人氣歌手 蔡奎燁吹込의
서달넌가슴
레코-드番號 四○七二一番
은 發賣大好評으로第一回、第二回、第三回大量入荷分이모다賣盡되엿슴으로 미리注文하서슴에도應치못하와 매우未安하게되엿사오며 第四回大量入荷에際하야 當時가지주시압소서
流行歌 서달넌가슴 蔡奎燁
忽然品切 好評嘖嘖
또다시品切되기前에 콜럼비아特約店에서 試聽하신後 한시밧비 사두시기를바랍니다
日本콜럼비아蓄音器會社 京城支店

集中局과分配局特設 一時에大量咀嚼

臨時雇用延人員六千五百名採用

來月廿日부터特別取扱開始

年 賀 郵 便

체신국에서는 오는이십일부터 년하우편(年賀郵便)특별취급을 시작할터이라한다 작년에 취급한것은 전조선에서 발신 착신모두 약 오천팔백만이엇는데 금년은작년보다 증가할것으로 예상하야 륙천백만가량일것으로보고 그대책을 세웟다한다

1, 년하우편의 취급에 대하야 조선안에서 발착한 것에는 삼십구개의집중국(集中局)과 칠개소의분배국(分配局)을특설하고 또 일본내지와만주상대로 발착하는것도일본내지 이십구 만주십사의 집중 분배국을정하야 년하우편취급의정확을 도모하기로되엿다

2, 대량의 년하우편의 발착이 잇는 삼십여의집중 분배국에는 정원(定員)외에 연인원(延人員)륙천오백인을 사용하야 한꺼번에 몰려드는 대량년하우편의 취급에 복족이 업게할터이라한다 (사진은 선전포스터)

西北朝鮮高地帶開發策

五十萬戶目標로 農耕面積擴大方針

獨特한農作物의增殖을獎勵

총독부 농림국에서는 작년이래로 조사중이든 황해(黃海)평남북(平南北) 강원(江原) 함남북(咸南北)여섯도에걸처 소위 고원지대 개발을목표로 현재의농업자 삼십삼만호백팔십만인에 이민을합하야 오십만호 삼백만인으로 증가식힘과함께 현재의농작물 경작가능면적 팔십구만오천정보를 백일만오천정보로 확대할방침을 수립하기에 이르럿는바 이가튼농업자에는 고원지대풍토에 적당한 농작물의증식과 장려에노력하기로되엿다 농림국에서 계획하는 주요농작물과 장래의경작목표면적은 다음과갓다

▲禾穀類

	目標作付面積	現在作付面積
大麥	七六、八〇〇町	六八、八〇〇町
小麥	八〇、五〇〇	四三、五〇〇
燕麥	五四、〇〇〇	一〇五、五〇〇
裸麥	二〇、〇〇〇	—
粟	三九、七〇〇	二〇二、七〇〇
蜀黍	二〇、〇〇〇	一八、〇〇〇
黍	六、〇〇〇	五、二〇〇
玉蜀黍	六〇、八〇〇	五五、八〇〇
稗	三、〇〇〇	二〇、六〇〇
蕎麥	五〇、〇〇〇	四八、八〇〇
小計	六〇八、八〇〇	五三九、二〇〇

▲荳菽類

大豆	一〇六、六〇〇	[illegible]
小豆	六五、〇〇〇	六〇、八〇〇
綠豆	四、一〇〇	四、一〇〇
菜豆	八、六〇〇	四、六〇〇
豌豆	四、〇〇〇	二、〇〇〇
其他豆	二、〇〇〇	一、六〇〇
小計	二四四、〇〇〇	二四一、二〇〇

▲特用作物

馬鈴薯	七六、四〇〇	六六、四〇〇
大麻	八、五〇〇	八、五〇〇
亞麻	三、〇〇〇	一、二〇〇
호프	一、〇〇〇	—
小計	八九、六〇〇	七六、一〇〇
大根及白菜	三四、五〇〇	一九、五〇〇
總計	八九一、五〇〇	八六八、八〇〇

江原道沿岸 暴風被害酷甚

家屋倒壞漁船破損

지난이십칠일부터 이십칠일까지에 맹렬히 불든바람은 강원도해안에서 풍속(風速)지십팔미돌을 보이고갑자기를 덥처서피해가 만핫는데 삼십일아침까지에판명된 상황을보면

▲사망자 한명
▲부상자 무명
▲행방불명자 네명
▲가옥도괴 십일호
▲가옥반괴 오호
▲선박침몰 한척
▲선박전괴 한척 ▲선박반괴 삼척 ▲선박행방불명 다섯척이며 아바거 양양(襄陽)서는 신사(神社)의계소가 너머지고 해안방면에는 눈지공장이 너머지고 집웅파손된것도 만흔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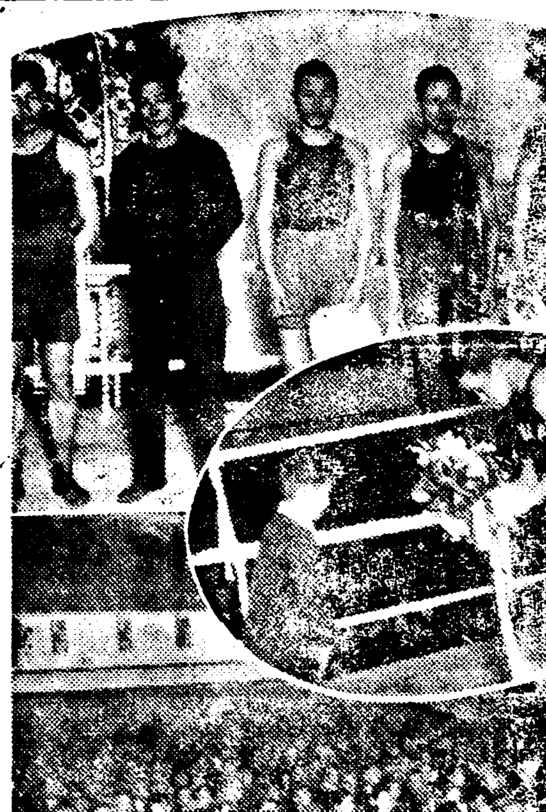
漁夫十五名 依然行方不明

仁川海難事件掃海作業報告

【仁川支局電話】루보=인천근해의 해난사건에 대하야는 이십구일 인천서 고송(高松)수상과출소주임이 경비선 작환(鵲丸)과 경긔도 수산시험선 백구환(白鷗丸)을 가지고 이십구일아침에 충남해안과 덕적도(德積島)해안의 소해(掃海)작업에 출동하얏다가 동일 오후 아홉시에 인천으로 돌아왓는데 고송주임의 말을 들으면 다음과갓다

一、부천군 덕적면 서포리(富川郡德積面西浦里)사는 문현태(文鉉泰)의 발동선원 다섯명 장대진(張大振)의소유선과 선원 여섯명、우갑준(禹甲俊)의 소유선과 선원네명—이상 배세척은 이십육일에 울도(蔚島)방면으로 새우잡이를 나갓가가 강풍에 조난을 당하얏는데 이때까지 그행방을 찻지못하얏스며

二、이바게 울도연안에는 파선된배가 세척이 발견되엇는데 이배들은황해도해주읍내에사는 김능현(金能鉉)과 부천군영종도(永宗島)에사는 문집(文集)파 인천부 신정(新町)에사는 최봉도(崔奉道)의 소유어선으로 새우젓동을 가득실고 이십칠일 아침에인천항구에 들어오다가 강풍을맛나 울도로 피난하려고한든것이 배가바위에부듸처 파선된것이며 인명에는다행히 피해가업섯고 손해는 약삼천원이라한다



寫眞說明 ＝上은 아마튜어拳鬪優勝者、圖內는 優勝旗를 朝鮮拳鬪聯盟으로부터 李奎煥君에게 授與 下는 熱狂된觀衆

梅鉢의火因은 放火로判明

그집고용인「시야」란자의 窃盜한끄테저즈른惡行

【귀보】지난 이십일일 오전세시이십분경에 이러난 시내종로 일정목 국수집 매발(梅鉢)의화재원인에 대하야 소관종로서에서 방화혐의로 그집고용인 시야 춘일(矢野春一)(二三)을검속취조중이던바 삼십일에이르러 드듸여그의소위인것이확실히 판명되게되엿다 전긔시야는 약삼년전부터그집에고용되여잇던 사람으로술을만히먹기때문에 돈에궁하야 주인의금고에서 현금이십원을 홈치고 그흔적을업새기위하야 신문지로 천장에 불을노흔것인데 종로서에서는 이제그취조가끗낫슴으로 일건서류와증거를 수습하야 근근검사국으로 넘기게되리라한다

變心한안해를 警察에說諭哀願

시내행당정(杏堂町)백사십칠번지의일호 왕태산(王泰山)은 지난소화십삼년 후처로어든 신림분(申立粉)(二三)이가 작년팔월에가만히 집을나간채 도라오지안음으로 이래백방으로 차저보든바 얼마전에 창신정(昌信町)오백구십이번지 리석희(李錫禧)의집에서 정도홍(鄭道洪)이라는사내와 동거하고잇스니 자기한테오도록 설유하야달라고 동대문서에 설유원을 제출하야 동서에서도 어찌하엿스면 조흘는지 생각중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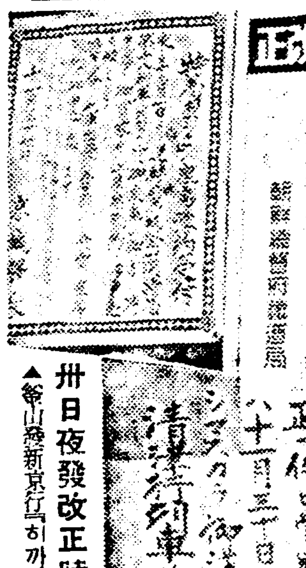
鐵道時刻改正

今夜부터實施

全線의新따이아에鐵道局徹宵活動

超特急『曉』는 一日午後부터

경성—부산(京城—釜山)사이 사백오십킬로를 단여섯시간사십오분동안에 달리게될 최특급「아까쓰끼」(曉)는 마침내 오늘밤부터실시될터로철도국에서는 총동원을 하다시피그준비에 매우 바뿌고 잇는중인데 희긔적초「스피드」의 렬차운전과 동시 전선(全線)각역의 발착시각이 거지반 바뀌게 될터인데그중청선에 새따이아는 운전발착시간은 다음과갓다



卅日夜發改正時刻列車

▲釜山發新京行「히까리」午後六時五十五分
▲釜山發奉天行第三列車、京釜線深川驛으로부터 一日午前三時八分 新따이아
▲京城發釜山行第四列車午後十時五分
▲京城發木浦行第三〇一列車午後十一時十分
▲京城發咸興行第五〇九列車午後十一時
▲咸興發京城行第五〇六列車、京城行第三〇二列車午後十一時二十七分
▲木浦發釜山、京城行第三〇三列車午後十一時五十五分着里로부터新時刻

一日京城發着主要列車時刻

日本內地方面行發時刻

▲急行「히까리」午前二時十分
▲第十列車午前七時四十分
▲第六列車午前十時四十五分
▲急行「노조미」午後二時四十分
▲特急「아까쓰끼」午後四時十五分
▲釜山木浦(急)第三〇一列車午後十一時十分發

滿洲方面行着時刻

▲新京行急行「히까리」午前二時五十分着同三時五分發
▲京城着特急「아까쓰끼」午後一時卅五分
▲奉天行急行「노조미」午後三時二十八分着同三時三十五分發
▲奉天行第五列車 午後七時卅分着同七時四十五分發
▲奉天行第九列車 午後十時卅五分着同十一時發
▲木浦發京城까지第三〇二列車午前七時十二分

京元·咸鏡線(京城發)

▲城津行第五〇三列車 午前八時卅五分發
▲清津行第五〇五列車 午後九時五十八分發
▲咸興行第五〇九列車 午後十一時發

京元·咸鏡線(京城着)

▲城津發第五〇四列車 午後九時卅五分
▲咸興發第五一〇列車 午前七時五分
▲清津發第五〇六列車 午前八時七分(사진은 시간개정의게시)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朝鮮及西日本에 퍼지고잇는데 그勢力은 弱하고 滿洲及中國內陸方面은 氣壓이얏고 東滿洲에는 弱한不連續線이잇다 "오호츠크"海에는 제優勢한 低氣壓이잇고 滿洲朝鮮은 흐리잇고 國境에는 小雨와降雪이잇다 日本內地는 關西地方은 晴其他는 大槪曇天이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曇明日晴曇 京畿道全區 同上

昨日最高 五度二 同最低 四度四 今朝最低 四度 今日正午 七度二

開城에또强盜!

現金卅餘圓强奪逃走

【開城支局電話】개성(開城)에또 강도가나타낫다 이십구일밤열시오십분쯤에 개성부고려정(高麗町)미곡지회상(米穀商)을경영하는 장보래(張寶來)씨의집에 조선식도(食刀)를 손에들은 강도한명이 뛰어들어 주인장씨를 위협하고 현금삼십원을 빼아서가지고 도주해버렷다한다 관할개성경찰서에서는 긴치로 활지하고 사방으로 범인을 찻는중이라한다

아마튜어拳鬪 各級覇者決定

超記錄的盛況裡終幕

전조선아마튜어권투련맹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삼회전조선아마튜어권투선수권대회결승전과 올림픽대표리규환(李奎煥)군의환영전은 전일에 배가한열광적 인끼속에 작이십구일오후칠시부터본사대강당에서열리엇다 이날의전적은다음과가트며 시종격렬한접전끄테각급선수권을결정하엿는데 대판(大阪)파견선수는 이번선수권획득자중에서 전형선발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흥미를끗은한 리규환(李奎煥)군환영전에는 박룡진(朴龍辰)군이 조전하야 량군의 세련된묘기에 만장관중으로하여금도취케하엿다 이리하야동대회는 장황대리하야 성의경(成義慶)씨로부터 각급우승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니 이틀동안 아마튜어권투대회로서의 파고록적성황을이룬동대회는 막을다치엇다

各級決勝戰

【플라이級】 金明鎬(朝拳)判定 金甲奎(朝拳)
【밴땀級】 鄭鳳鉉(木浦)延長判定 朴春緖(朝拳)
【페터—級】 宋孝鐘(朝拳)判定 盧甲成(朝拳)
【라이트級】 朴龍辰(朝拳)判定 朴公在(朝拳)
【웰터—級】 金泰奐(朝拳)判定 宋在辰(朝拳)
【메터—準決勝戰】 宋孝鐘(朝拳)延長判定 洪鍾殷(朝拳) 盧甲成(朝拳)KO延長 權五奎(朝拳)

【歡迎試合】 李奎煥(올림픽代表)無判定 朴龍辰(朝拳)

웰터—級의 李君과 라이트級의 朴君과의 對戰이라 KO가업는限 無判定으로되엿다

普專럭비部 大阪遠征

卅、對三大豫敗

明春一月初旬에 大阪花園球場에서 擧行될 第十二回 全日本高專럭비選手權大會 朝鮮豫選決勝인 普成專門對京城帝大豫科戰은 二十九日 午後一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本多(主) 金鍾洙 古川(線) 三氏審判下에 普專『킥오프』로 開始된바 普專의 원사이드게임으로 三十七對三의 큰差로 普專이優勝하야 朝鮮代表로 選拔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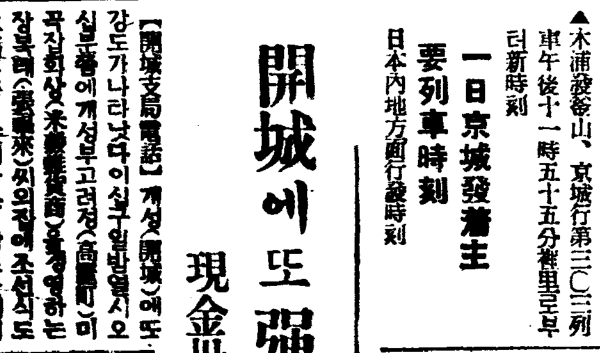
普專 37 (29…0 / 8…3) 3 大豫

【大學豫科軍】

FW 海茂玉樋大森瀨三木小山小池 HB 林 TB 老野木口村井浦田倉田林譲田口 BF

【普成專門軍】

FW 欽勳林奎鎬山沫得培機錦澤浩榮山 HB TB 龍基東貫宗斗敏仁順悅明性仁仁 BF 尹金朴裴宋金李崔韓許劉



◇寫眞은 優勝한 普專軍

羅紗注文詐欺

이십구일 오후세시반경에 시내명치정(明治町)일정목 륙십오번지 경성소사양복회사(京城洋服會社)에 어떤자가와서 도의정이십사번지로 라사다섯야—드를 배달하야달라고하야 문깐에서 배달하는것을 밧고 작자는안으로 들어간뒤에 그대로 종적을감추어버렷는데 나중에야 그집과는 아모관게가업는것으로 사긔당한것을알고 경찰에 보고하엿는데방금소관본정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다

各町總代에게 防犯協力要請

년말경계를 압두고 부내본정 경찰서에서는 범죄의 예방과및 검거에 일반민중의협력을구하기위하야 「큰단속을실시하라」는의방범「데—」를 틀리는 동시에 이십구일에는 본전(本田)서장이남산장(南山莊)에서 열리는 관내각정총대(總代)주리총회에 나가정총대들에게 범죄예방에 관한이야기와 및범인검거에 협력하여달라는 방범강연까지 하엿다고한다

普仁堂에小火

삼십일오전열한시경에 시내종로이정목이십일번지 보인당약방(普仁堂藥房)에서 고약을맨들다가 기름에불이부터 일시는상당히 소동하엿스나 곳불을꺼게되여 손해도극소하엿다

林鳳淳에게 二年役言渡

소화팔년이래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에다니며 의렬단(義烈團)과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야 조선독립운동을 피하엿다는 평남출생 림봉순(林鳳淳)(二七)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 언도공판은 삼십일오전 열한시부터 경성 지방 법원 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장곡(長崎)검사관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삼년징역구형에대하야 징역이년을 언도하엿다

「科學朝鮮」續刊

시내과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에서는 지난이십팔일 오후두시반부터 시내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中央基督敎靑年會館)내에서 제륙회리사회(理事會)를열고 부회장윤치호(尹致昊)씨의사회로 다음과가튼 사항을결의하엿다

一、科學朝鮮을明年부터續刊할일
一、會長은理事會에一任할일

他殺屍身元判明

麗水出生의李鳳錫!

갈수록複雜해지는吞芝町怪奇事件

疑問의聖書는무엇을意味하나

수수꺼기가튼 돈지정(敦芝町)서 타살시체사건은 사건발생이래오늘까지 만여세동안 룡산서형사대가 한대는 경긔도 광주(廣州)려수(麗水)방면에서 각각 활동을 계속하고잇든중 삼십일아침 려수에 출장간 룡산서 전전(前田)부장으로부터 「죽은사람은 려수출생 리봉석(李鳳錫)으로판명되엿다 자세한것은 올라가서」 하는 전보가 드러왓다 이것으로 근지비로소알게된 성긔(星崎)사법주임은 전전부장이도라오기를 긔다려 자세한 경황을들어가지고 게이단계로 범인수사의 활동을개시할모양이다 그러나 여긔서 한가지의운이끄것메노혀잇는것은 죽은사람의머리맛헤 노혀잇든 원목사(元牧師)서명의 "빼이불"과및 허성(許星)이라는 "싸인"을한 찬송가책두권이니 리봉석의시체아페 어떠케 두만사람의 책들이 끼처저잇섯든가? 하는것이다 혹은 원목사로부터 허성이라사람으로부터 죽은사람이 빌어가젓든것일가? 그러치안흐면 어떤하수(下手)한자가일부러 자긔의 죄상을「캄푸라—쥬」하기 위하여 노흔것일가? 이말엇는 의문의것은 두권은 장차어느편으로 해결의 길을 인도할것인지? 아프로세상의 흥미는다시「범인은누구?」에로 끄을려가고잇다

基督敎史講座

一週日間基靑서

조선중앙긔독교 청년회 종교부(中央基督敎靑年會宗敎部)에서는십이월일일부터 일주일간 그회관에서 긔독교사강좌회(基督敎史講座會)를 연다는데 그강좌과제와 시간은 다음과가트며 일반의 만흔래청을바란다고한다

一、初敎時代 卞鴻圭 博士
一、西進時代 同
一、東進時代 同
一、統一時代 同
一、分裂時代 同
一、改革時代 同
▲每日午後七時開會

豫定額突破한 水害義金

五十萬圓臺에接近

조선사회사업협회에서 방금모집하고잇는 금번의 중대수해의리재민구제의연금은 이십칠일에드디어 총액사십칠만칠천여원에 달하야 아프로모일것을합하면 오십만원을 돌파하게되엇다는데 처음의예정액인 삼십만원보다 이십만원을 초과하게되야 매우호성적을 보이고잇다한다

昨年中의 貨幣僞造事件

近七百件

僞造團本據는 滿洲나日本內地로推測

경무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작년일년중에 조선안에서위조지폐와 은화를 사용하다가발견된건수는 화폐가 륙백사십오건이고 지폐가삼십구건으로합계 륙백팔십사건의 다수에달한다 그리고 위조화폐중에는 오십전은화가 가장만허서 이것의발견건수는 오백사십칠건의 다수에 달하엿고 지폐의 위조는오원짜리 일본은행권이 이십이건에 달하엿다 경무국에서는 위조화가 발견될때마다 현물을 경찰부로부터 가저다가감식(鑑識)을 엄밀히하는동시에위조단의근거를 박멸하고저 사용자를 검거하야 엄중히위조화사용의 경로를 조사하나 아직것위조단의 소재는판명되지안는다는데 위조단의 본거는 만주나 일본내지에 잇는듯십다한다

官廳出勤時間 明日부터變更

조선안의관청은 래일부터 출근시간이 느저진다 즉오전열시에 출근하야 오후네시에 퇴청하는데 이출근시간은 래년삼월이십일까지라한다

九穴炭中毒慘劇

三名中毒、一名絶命

괴회의 비극은 도다시계절이 비저내는 비극의 전철(前轍)을 밟게하엿다 가평군 군내면(加平郡郡內面)에 본적을두고 부내관동정(館洞町)사번지 일백구십팔호차억만(車憶萬)의 고용녀로잇든 오해순(吳海順)(三二)이라는녀인은 이십구일오후열한시이십분쯤에때마침 혹독한 추위라 구혈탄(九穴炭)에 불을 담어가지고행랑방에 드러가서 동거인 김광수(金光洙)(七)라는소년과 박씨(朴氏)(二八)라는 늙은부인등세사람이 취침하엿다 이튼날인 삼십일 오전일곱시쯤에 주인의 녀잇고 소년과 박씨는 중태에 빠저잇섯슴으로 곳경천병원에 입원식혀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오해순은 절명되고 소년과 박씨는 생명만은 건질것갓다고한다

쌀갑시또떨어저

요지음 햅쌀(新米)이 만히나와서 정미원료가 저락되엿슴으로경성부 일용품공설시장에서는백미소매갑을 일일부터한『키로』에 오리식내리기로되엿다

蔘茸トニク 蔘茸トニク 蔘茸トニク 蔘茸トニク 蔘茸トニク

美味의強壯劑

蔘茸トニク만은

꼭한번잡수어보시요

各地百貨店有名藥店에有

補血強壯劑

蔘茸トニク

五圓 二圓八十錢

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本町 振替京城四七五

發賣元 株式會社 京城…三丁目 振替京城一九〇七

學校를爲해서!

わかもと에添附한掛圖引換券을先生님께드립시다、그引換券으로各校에훌륭한掛圖가寄贈된다。

胃腸榮養 わかもと

便秘와泄瀉

무릇便秘와 泄瀉와가튼 正反對의 症狀을 만드는 病이同一한藥劑로 治療된다고하는것은、在來의 對症療法의 立場에서보면全혀不合理하게생각된다。 그런대 헤ー예菌劑『わかもと』는 이相反하는 二種病症에쓸수잇서 各各効果를發揮한다、이것이本劑가 便秘와 泄瀉에 共通한原因인 腸機能의衰弱을恢復하고 그機能을活潑하게하는作用에 뛰여남으로 在來의 對症藥에 對하야原因療法劑라고 불러지는所以이다

生命を縮める便秘

便秘는不斷히劇甚한苦痛을주는病이아님으로、治療에等閑히하기쉬우나、慢性的으로 健康上에밋치는 害惡은他의急性의 重篤한病에比하야 決코떠러지지아느며悠悠히生命을侵蝕한다

腸內에는健康時라하여도 無數한細菌이잇서 糞便을分解醱酵식혀種種의 有毒物質을發生하야 이것이血液中에吸收되여서全身을循環하는것으로血管壁을硬化식혀서、高血壓、腦溢血等의誘因이되며、老衰를속하게할뿐아니라 婦人에게만흔 여드름、기미、주근깨等의容色을害하는것도 이原因으로되는일이甚히만타

「わかもと」는 常習便秘에對하야서、在來의植物性下劑、鹽類下劑와는、全혀다른作用에依해能히便通調整하는目的에達한다그것은 本劑의特色인細胞原形質賦活作으로、衰弱한腸管의 機能을恢復식히며、弛緩한蠕動運動을 活潑하게하는바로、何等의副作用、刺戟作用이업슬뿐아니라 兼하야 消化吸收를旺盛하게하고、榮養을 增進식히는効果가잇다。

파라세루스스

十六世紀에瑞西에서나고、獨創的治療法으로第二世紀의가렌以來의醫學을訂正한大家

慢性衰弱を招く下痢

常習便秘에對立하는 慢性泄瀉도 經過가오래가는 병으로 이것은 患者自身治療에焦慮함에 不拘하고 數月或은數年을經過한慢性症이、된때는 容易하게輕快하기어렵고 僅少한食物의變化、寒冷의 影響等으로 病勢는逆轉하야、患者는 食物에對해서 神經質이되고 飮食을享樂할수업게되여、一便榮養이低下하야 感氣、結核病에對한 抵抗力이變하고、等에걸리기쉽게된다。

이에對해서、在來의療法은거진、庇護療法에꼬치고、食物을制限하며、消化劑로서變한 消化作用을도아 收斂劑로昂進하는腸內의 分泌를 抑制하는等에手段을講究한다。

그런대「わかもと」는 常習便秘에對하면 똑가티、細胞原形質賦活作用으로 衰弱한 腸機能을 恢復식히고、本來의生理作用을 旺盛하게함으로、腸自體의 消化力이昂進하고 能히諸種의 食物攝取에오래고、腸內分泌에 過大도正常으로되여、過敏한蠕動도調整되여、自然히便通을할수잇다、따라서榮養도恢復되고 體力도增進하야 强健한胃腸이되는것이다。

代用藥업다

わかもと가 헤ー예菌劑인고로、헤ー예菌劑이면 은어떠한製藥도同樣의效果가잇다고 速斷하여서는안된다、헤ー예菌에는 數百千의種類가잇서 그成分의種類와는가장 또千差萬別이다。藥用으로 가장優秀한菌種을擇하고 그培養과處理、製藥의技術에잇서 最高의標準에 達한은本劑의자랑이라고하는바이다。

藥價低廉

粉末 九〇瓦　錠劑 三〇〇錠

壹圓六拾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하는데直接發賣元으로送藥을願하는분은藥價만을送金하면一個라도急送

合資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들가마귀

겨울은음산한철

의복과 화장을 명랑히 하자

얼골우에나마 환한빗갈을 보이자면 진한빗갈은 일체금물 (8)

겨울은 청명한 날보다도 음산한날이 만코 또 청명한날이라도 봄이나 가을갓지는 못합니다。그럼때는 의복이나 화장(化粧)이 명낭하여야지 그러치안허서는 사람의 얼골이나 몸매시까지 고만 따분하야 돗보지를 안습니다。눈바가 오거나 날이 끼물끼물하는날 흔히들 좀 진한빗갈의 의복을하고 나서는 모양이나 그것은 아조 커다란 착각이니 만일 당신을 이쁘게 보이도록 하시려면 그런날수록 좀 화려한 빗갈의 의복을 입으서야 될것입니다。이것은 요전에도 한번 말슴드렷지오만은 특히 겨울에 더 염두에를 하셔야합니다。

분으로 말하오면 누른빗이나 그 근사한 빗은 솔하고 흐어 보힙니다。얼른 살빗에다가 핑크빗을조곰 섞어서 쓰는것이 조슴니다。요사이는 어쩐지 누른빗이 유행하는 모양이나 찬성치 못 할 일입니다。「핑크」빗갈의 분이야말로 아조 매력을 도웁지 안나고 생각됩니다。그러니까 얼른 살빗에다가 핑크빗을 섞거서 써보시지요。아모리 흐린 날이라도 여러분의 얼골에만 해빗이 환하게 비최는듯 하오리다。

×

뺨이나 입살에 바르는 곤지도 아조 진다홍은 꺼려해보힙니다。연한 빨강이나 「오렌지」빗을 쓰는 것이 조흘 것입니다。그리고 입살에고 뺨에고 다른때보다 좀 진하게 발러도 조슴니다。그래야만 화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그러나 늘 말슴이지만은 「베니」를 바른다고 잘못 발러서는 오히려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늣김을 주게 됩니다。그저 남이 얼는 보아서는 알듯모를듯이 그러케 발러야만 그 효과를 내는것이라고 볼수 잇습니다。진하게 바르라는 것도 그정도로써 진하게라는 말이니다。결코 두터이를 해서 보기싫게 하란말은 아닙니다。

의복도 이미 말슴한바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것을 입어야만 합니다。의복뿐이아니라 우산 장갑등속 일지라도 일체로 화려한빗을 요합니다。그런데 우산은 요사이 양산겸용으로 쓰는것이 대유행인데 편리하야 조슴니다。하여튼어떤 우산이나 양산이고 청색계통은 얼굴에 그늘을 지워서 재미업스니 조곰 붉은데 가까운 자짓빗 가튼 것이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醫學의分化

병자가생겻슬때 차저갈병원? ❷

金時昌

평안의구중에 별안간 병자가 난다던지 그럿치안하면 우연한 기회에 병자를맛나서 병원으로 데리고가지안할수업는경우에 엇더병원으로 데리고가야할것인가 평상시에 무심히생각하든것도졸지에 당면하면 그처치를그릇하야 의외의실패를보는수가 잇는것입니다。

오날의의학(醫學)은 그각과의 분화(分化)가 극히진보되여서업무그일홈을 글자만으로 판단키어려운수가만습니다。이러기에 병자를 안내하기에 필요한 병원안내긔관이 필요하기는하나 도저히 그성질상조선에서는 그실현을 기다리기어려우니 오즉일반의 의학적상식의 향상에 노력하는수밧게업습니다。물론경제적으로 여유가잇서서 량심적인전임의사를 둘수가잇다면 그의사의지도를 밧는것이 리상적이겟스나 일반이 그러케할수도업스니 일상시의 상식적지식이 긴요할것은 두말할것업습니다。

각과의분과의표준

조선에 옛날부터잇는 한방의는 대개 무슨병이나 큰구별업시 치료 진맥을 혼자서하엿스나 그때는 우리에 알여진병의 종류도 적엇스며 치료방식도오늘과가티 복잡하지안하엿기때문에 각과를 구분하기에 이르지 못하엿스나 신의(新醫)의 의학과 의술의 발달은 도저히 여려과로 나누어 지지안흘수업서서 드듸여 오늘의 림상(臨床)과목의 발달을보게되엿스니 오늘의 큰전문과명을 들추어보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과 정형외과 정신과 치과등을 들수잇스나 일진월보하는 의학은이들큰과에 비등할 새루운전문과를 분립식히게할것이나 멀지안한 장래에 더욱더욱 각과의선택이 복잡하야질줄 밋습니다。가령리학적료법과가 내과에서 분립한다던지 피부과 비뇨과가 분립한다던지 하는것은 벌서현재의 일이되고잇습니다。

그러면 그여러과의 나누어지는 표준이무엇인가 이경계선은 상식적으로보기에는 명료할듯이 생각되나 과에딸아서 다소차도는 잇슬지언정 어떤것이고 백지에 붓으로 그린듯이 똑똑히 구분할수업는 병이 허다합니다。이것이 오늘의 의학생에게 각과의 구분을 엄격히 연구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도되는것입니다。

물론각과의사들에게 그전문적한계를 물으면 비교적 명확한 구분선을 발견할것이나 도저히 일반사람으로서 가능한일이 아니니 제일알기쉬운것을 들기로 하겟습니다。차차로 구분하기쉬운과부터들기로하면 첫재치과――이것은 아마도설명할필요도 업슬듯하나 주장으로치아에대한 질병을 진료하는곳이니 이(齒)가 병낫슬때 혹은 치아의 보충이 필요할때에 차저갈것이요 둘재안과――이것은 어룬이나 아해를 물론하고 눈병난것을치료하는것이니 눈속뿐만아니라 눈거죽과 눈섭근처까지의병난것을 빼리고가면 크게틀림은 업슬것이요 안경을 쓰거에 필요한 검사도 물론 안과의범위입니다。

딸의애기하는 그어머니

우리『샬ー리』도 결국은ー시집갈것!

사람을맨드러노아야지요

『샬ー리·템플』이라고하면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세계영화팬들의 인긔가 여간놀라운 아이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중에도 샬ー리의 팬이 만흘것입니다。어린아이로서 그만치 사랑스럽고 눈물겨운 연기를 뵈여주는 것은 샬ー리밧게는 업다고 모다들 칭찬하며 사실 천재소녀라고 할수잇습니다 샬ー리처럼유명한 따님을가진 그의 어머니『가ー트루ー드·템플』씨의샬ー리에대한 포부는비단 천재영화배우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일반의 어린딸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들에게 절실히 들려줄말이 만흐므로 여기에 실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도움이되게하랍니다 (기자)

○

나는친한벗이나 이웃사람이나 신문기자들에게 다음과가튼 질문을 거이날마다밧고잇습니다 『당신은 샬ー리의 어머니로서 점점자라가는 샬ー리에게 대하야 어떠한 기대와경륜을 가지고 잇습니까?』

내자신도 여긔대하야 만히생각해보앗습니다

그러나 나는사실 그아이에게 대하야 아모런경륜을 가지지못하얏습니다。될수만잇스면 제대로 키우랍니다。이러한 생각은 어머니로서 의례하고 무책임한 말가트나 아모리자식을 귀여워하고 위한다는 부모일지라도 아이들의 재능과소질이 장래에 어떠한 열매를 매즈리라고 단언할수잇겟습니까 어린자식을 둔사람은 누구나 그자식을 장래를위하며 잘키운다고 자부할것입니다마는 그것은 대개가지금나와가티샬ー리에게 대한 그 생각박게는 더업스리라고 생각합니다。결국은 아이들의 장래는 아히자신이결정지울것입니다

내가 샬ー리게 기대하고 바라는것은 그저 샬ー리가 지금을튼 구르든 소녀배우로서성공한것과가티 자라서도 한사람의 훌륭한『레듸ー』가 되어주엇스면 하는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어려울것 갓습니다。

그다음으로 나는 샬ー리가늘 아름다워 뵈라고빕니다。녀자의 생명은『아름다운얼골』과『아름다운마음』일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자식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두지가 제일큰소원일것입니다 샬ー리도 장성한 처녀가되면 매력애헌한맛이 업서지게 화장을하고 사교계에 나가서 여러사나이와 사괴일것입니다 그때의샬ー리에게 바라고시픈것은 제발 분홍계숭계 발려서 독가비처름채리고 나서지마라주엇스면 합니다 요사히는 화장으로 자기천래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녀자가 얼마나만습니까 젓트루ー주의 얼굴과너무나꾸민듯한연지를 칠코나서는 딸을볼때 어머니로서 얼마나사랑스런딸을 위하야 슬프게 생각될것입니까 꾸민『미인』이되지말고 천연스럽게 자연대로의『아름다움』이것을 바라고잇습니다

샬ー리의 아메는 지금장성할처녀로서의 애인을 가진다는시기가 닥쳐올것입니다。나는 사실 이것이 제일걱정됩니다。그러나 상대자가 웬만하면나는 모든것을 샬ー리자신에게맛겨두고 상관하지안흘랍니다 그남자가 부랑자라하드라도 내가 충고하는것보다 샬ー리자신이나 이상으로 부랑성을 뜨더볼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말갓습니다마는 세상의 부모들은 내자식을 이와가티 밋고잇서야 할것입니다 무엇이던지 어린이 중심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어룬의 장래는 얼지안흐나 어린이의장래는 밝고간것입니다 그런도로 불고하고 무엇이던지 어른들의 명령이 펴이도록 자식을 지도하고 강제하는 부모들을 볼때 차라리 가엽슨생각이 납니다。

샬ー리는 장성하면 곳선량한가정에 시집갈것입니다。주부로서도 상당하리라고 밋습니다 그애는 늘『시집가면아이를 셋만 나흘테야』하고 입버릇처름 짓거립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너흘필요를늣기지안습니다 너무천진생활과거리가먼학교공부보다도 샬ー리는벌서 실사회에서 그만한 교육을밧고잇습니다 독립정신이 박약한학교마친 녀자들보다 그애는정말 귀중하고 무게잇는 실용교육을 밧고잇습니다『색쓰피어』는 어드학교교육으로 그다지위대한 문화가가되엿슨습니가 그러나 샬ー리만한나면 오날이라도학교에 너코라한니다 아프로 어떠한 길을 밟을지 그것은 그애를 기르는 부모된사람도 알수업는 수수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온세상부모가다가티 늣기고 잇슨일일가 합니다(끄튼)

샬ー리와 그의어머니

왕자와거지 ㉖

마ー크·토웬 作 崔秉和 譯

그동안에 국왕은 열심히 헛간속을살펴보니깐 저편구석에 그리적지안흔 마구간(말자는곳)이잇는것을 보앗습니다。그래서 농부들이간뒤에는 그리로가라고 별르고잇섯습니다。그곳에는 말울덥허주는 담뇨가세게나잇스므로 그담뇨로 오늘하로밤 영국왕이덥고잘랴고 별르고잇섯습니다。

어느듯일을끗마친 농부들은 등장을 가지고나가드니 문을닷첫습니다。추어벌벌떨고잇는국왕은 어둠속에서 담뇨를끄내가지고 마구간속으로 기여드러갓습니다 담뇨를두개깔고 한개는덥고 자기로햇는데 다허러빠저서 얄바진 담뇨임으로 따뜻하지는안코 며욱이 코를찌를듯한말냄새 말똥냄새를 참기어려웟지만 그러나 국왕은 아조태연하게 두러누어엇섯습니다。

배도고프고 춥기도햇지만 무엇보다도 외롭고 슬프기는 하엿서 두러눈지얼마안되자 고만 잠이기피드러버렷습니다。

一八、두少女

어른날아츰일즉이 국왕이 잠이깨여보니깐 물에빠져든 생쥐한마리가 자기배우에서 축크리고안저서 잠을자는것을보앗습니다。국왕이 몸을 웅치니깐 쥐가깜작놀라서 다라낫습니다。국왕은 얼골에 우슴을띄우면서 말하엿습니다。

「흥、뭐 그러케무서우냐? 나도너와가티 집업는불상한 신세다。그런내가 웨 너를 못살게굴리가잇니。차라리 나는 너에게 례를하고십다。영국왕으로잇는사람이 쥐의잠자리가되도록 천해젓다면 더천해질리는업슬테니깐。이것은 필경 이제로부터 점점 운수가터질 증조가아닐까。」

국왕은이러나서 마구간밧그로 기여나오니깐 맛침아 이들의 이야기소리가 들려오면서 헛간문이열리엿습니다。조고만계집애들이드러왓습니다。두아이는국왕을보자 깜작놀래면서 국왕을바라보고잇섯습니다。그리고 두리서 쏘근쏘근 귀속이야기를하드니 국왕에게로 가까히오드니 아까와는딴판으로 아조태연스러운태도로 이야기하기시작하엿습니다。

「얼골이잘생겻지」하고 한아이가 말하엿습니다。

「머리털도 깨끗하구。」하고 다른아이가도 말하엿습니다。

「그런데 옷은 저러케 떠러울까。」

「애、배가퍼고픈가보다」두아이는 밧작가까히가서 이상스러운즘생이나 보는것처럼 잘못하다가는 잡혀먹히거나、물리거나할가바서 조심을하면서 국왕의머리로부터 발끗까지 훌터보고잇섯습니다。두아이는 손을마조잡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국왕의얼골을 뚜러지도록 치여다보드니 한아이가 용기를내여서 무러보앗습니다。

「너는누구냐?」

「나는 임금님이다。」하고 아이들은 이말을듯자기가막히는듯이 아닌말도못하고 눈을 비둘기가티 동그라케뜨드니 또말을 투릿습니다。

「임금님? 어느나라임금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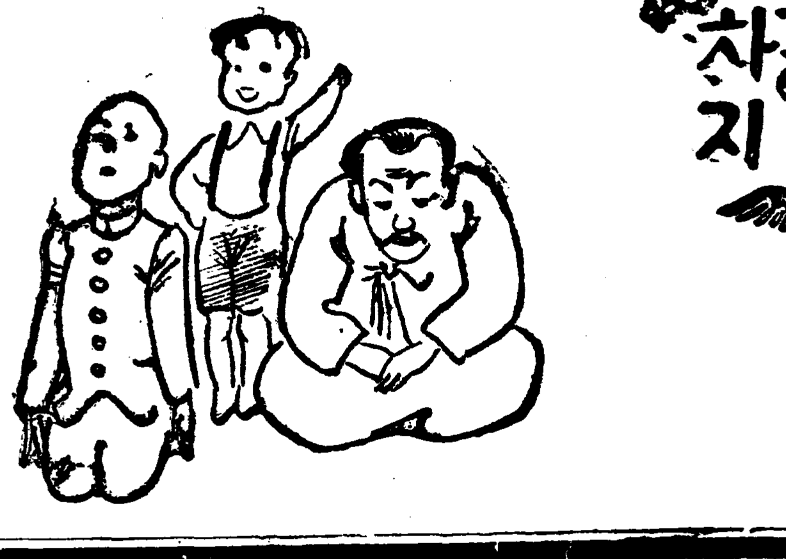
「영국임금님이다。」

아이들은 얼골을서로 마주보고나서는 또 국왕을치여다보앗습니다。

「마가리ー、너드럿지、저에는 임금님이라고한다。정말 일가?」

"절"

압빠는 안지섯습니다。
언니는 무릅을꾸르고 례를 폇습니다。
계옥이는 손들고
제가크다구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가정의학

잘때 오좀을싸오

문 금년십오세소녀인데 어려서부터 오날까지 소변을자조보며 밤에 잘는때에는 깨워주지안하면 자리에까지 소변을보게되오니 병명과치방을 하교하야주시기바람니다(平康讀者)

답 체질관계로 발생한야뇨증(夜尿症)인것갓습니다 치료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잇스나 체질에따러 치료방법이 일정치안습니다 만은하정치료하여 보시려면 취침전에『페라돈나엔키쓰』를 ○、○一크람을 복용하여보시요 (醫學博士 朴榮來)

유ー모어小說

姓女씨 (千)

金熊超 作·畵

農績의記錄 (14)

혹을 떼러갓다가 혹을부친셈일까? 이것도 말이 좀멀되고생으로 말을맨든다면 호랑이를 잡으러갓다가 호랑이는못잡고 녹대한테물린격입니다。

몽백군이 워낙분해서 펄펄뛰고 또한곰곰자기생각컨대도일그르친허물이 자기에게 잇는지라 두말못하고 뭇버랑을 마짐대로 맛고마럿습니다。

입을 저지려노으면 가슴울렁거리는중도 그때잠시뿐인것이다 그다음에는 외레히될대로 되어라! 하는자포자기가생겨니까요 이까짓거야 누구나다 경험하는바이지만……。

월급쟁이자 친구에게 술한잔 내는것도역시 어와마찬가질꺼입니다。

민보군의집에서 대포집전 세 사람은 필운동 골목을 내려와 당주동으로 빠젓습니다。

팔시도강산에 승지를 찻자면 여기저기 잇지만 그보다 좋고좋은 서울장안에서도 승지아닌 승지가 곳곳이 잇습니다。색향을찻는 오입쟁이가트면 다옥정 서린동、청진동……그러한데로 발낄이 갓슬껍니다만은 이세사람이 찻는승지는 색향이아니고식향인데 식향에서도 행화촌이엇습니다 로잣돈적은군들이라 삼신산가튼요리집에는못가도 죽장망혜단표자로 철리강산드러가는식으로 물잇고 바위잇는곳 발길닷는대로 길떠난셈이엇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까?」

래하군은 호주머니에든 이원각수를 안쓰겟다고버릴때에 떡괴롭드니、쓰자고드니 되려 기운이 낫습니다。몽백군은 신이더나는지 자진중머리의 주보경개가가 나왓습니다。

「아、갈데야 만치、내가 생길테니 드러 보려나。――안젓다 이러나 두루두ー루 거닐며장안 안숫지면구 손ㅣ바 헤아린다 동문밧 나가오면 형제추탕 좃사옵고 서문밧 나가오면 돼지순대 이름잇고 영성문안 팔뚝집은 수제비 찹쌀탁걸리……」

「집어치게 집어처 자네 실성햇나?」

하두어러번도를 노래라 판수군은 입에서 선불이 나는모양이엇습니다

「……저리가세 댐뢰술 벙장어집어라고 자네들아나? 여곳네가세。」

이러케 판수군의 안내로 승지를 찻기시작해서 마지막판에는 소잡어먹는데까지 갓섯습니다 외상먹는데 말슴이지요。

맨끗판에 찻집에드러 입가심을하는 판입니다 몽백군은 웬일인지 아까부터 정헤녀사를입에 칩이마르도록 극구찬미햇습니다。

「됏서、여편네란 그러케 돼야해!」

「이사람、친구의안해에게 그런불순한 생각을 두는법이 아닐세」

래하군이 경고하는 맥세입니다。

「허ー떡한사람의 말봣나 내가결코 민보군의 부인에게 불순한 생각을품고 한말이 아닐세 친구의안해아니라 어머니를 보구라도 찬미야 못할거잇나 민보군이 부러워서 하는말이지。사실 인물이야 우리끼리말이지 칠점 가랑바게더되겟나? 그러치만 태도랄는지 말소리라는지 표정이라는지……거기에 알수업는미가 뚝뚝 떠러지뎅。」

「암。갓삽아논 은어가티 생기가잇고 향기가나고 신선하고……」

「이사람 자네까지 미치나」

관수군의말을 가로마으면서 래하군이 또、핀잔을줍니다。

「이친구는 패ー니 이야단이야? 자네부인도 어지간히 이쁜 모양일세만 우리는 아직 뵈지를못햇스니 할말업스나 요새사람으로 민보군의부인만한 안해를 엇기도 힘들껠세」

「아니야 신식이니까그랭、신녀성은 암만해도 신녀성의 미가 잇서」

「그신녀성의미라는게 뭔가?」

「글세 인헤리ー의 미라고할까?」

「인헤리ー의미도잇겟지만 그것만도아니야。햇、번이나 시모네、시몬이 얼골이 이쁘든가、학식이드레나든가? 그러치만 그것모 제것도아닌 매력이 풍부하거든 거기에사람이 반하거든말이야。내가왜하필민보군의부인만을들고 찬미하겟나만 친구의안해라자연히내안해와 비교를하게되니까 와이오르네그려」 몽백군의 머리에는 그의 안해영선여사가 떠올랏습니다。

世界傑作童話集

發賣中

定價 一圓 送料 六錢

出版部責任刊行 ◆◆

아버지、어머니、아들、딸、누구나 보아야 할 조혼 책이다。유치원보모、소학교교원은무론 아동문학의 학도는 꼭 보아야할 책이다。집집이 이책업는것을 부끄러워하라。

家家戶戶한卷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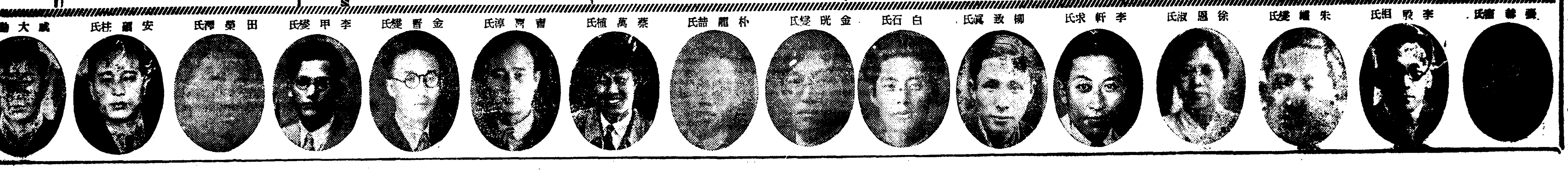
◇三百頁의內容만흔책◇
◇아름답기짝이업는책◇
◇누구나읽을純한글책◇
◇어야기마다挿畵든책◇

內容目次

日本篇 一、혀잘린참새 二、[illegible]「한어베」
中國篇 一、어부와물귀신 二、바보와수장사
米國篇 一、호로까는 날쟁이 二、고래와코끼리
佛蘭西篇 一、구두신은괭이 二、「펠ㅡ노」와 도깨비
西班牙篇 一、조고마한새 二、귀신이야기
英國篇 一、물색시 二、부대안의고기
愛蘭篇 一、선녀나라구경 二、伯爵夫人과 要魂장사
土耳其篇 一、보배거울 二、술픈의새
露西亞篇 一、개와啄木鳥 二、兄弟
亞弗利加篇 一、아름다운人形 二、날아다니는 木馬
獨逸篇 一、두머쥐 二、의어부사
和蘭篇 一、조고만농부리 二、상해에신여서 구두 어린애를가진 여자
丁抹篇 一、큰돌쇠와작은돌쇠 二、임금님의새옷
朝鮮篇 一、공주와딱쥐 二、흥부와놀부
印度篇 一、「따파나라」와 파랑새 二、에기원숭이들
以上

이內容이 全部 다 한卷에 들어잇습니다。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담배考

담배專賣議 (十)

湖岩

담배에 對해서 어떤 國家나 처음에는 禁令으로 禁止도 하엿고, 그것이 失敗되매 미처서는 다시 重稅로 制限을 더하엿다. 그러다가 一步를 내켜 專賣制로 驅迫을 하엿다. 이것을 俗稱 專賣라 한다.

오늘날 와서는 東西列國이 그 國庫收入의 一大財源을 이專賣에서 求하게를 되엇스니 그利益이 얼마나 多大함을 알것이 아닌가.

朝鮮에 잇서서도 一時 淸廷의 指揮로서 담배禁止를 論議한일은잇섯스나 吸煙그것을 禁止는 하지는 안엇다. 禁酒令이 내린것은 非一非再로되 禁煙令은 一次도 내린일이 업섯다. 만일 그當時淸朝朝廷에서 禁煙令을 發布하엿다면 吸煙發展에 그만한障害가 되엇슬만은 想像할수잇는 事實이다. 一方에서 항상論者나 學者사이에 雅草, 紙草라고反對가 잇섯지만 政府에서 禁止또는制限을 더하지 아니햇스므로 아모困難업시 順調로發展을하여왓다.

그러나 여기 말하려함은 담배專賣案이 아니오 담배專賣議이다. 明治政府에서 泰西官制의術을배워 담배專賣法을 採用한것은最近三十年間일이다.

朝鮮에 잇서서는 적어도 지금부터 約三百年前에 이미담배專賣論이 생겻다. 그發論者는具悅이니 그는壬亂에 立節한 具直의玄孫으로 일즉 積城縣監을 지내스며 그著에 竹樹祭滸이잇는데 그中에는 權酒權煙, 卽酒, 煙專賣의說이 적혀잇다.

여기對해서 아즉 그內容全部를 精確히 調査해보지 못햇스나 具悅이 專賣論을 首倡한事實만은 李圭景의五洲衍文(四)의 權煙酤議에 적혀잇다. 그글은左와如하니

『近世具悅, 有權酒之論. 又有權煙之議. 而無人采聽. 徒作紙上空文. 不知者譏笑誹毁而已』이다.

이로보면 具悅이酒煙專賣를發論한것이 分明한事實임을 알수잇는때문에 紙上空文이 되엇슴은 이라 衆笑群謗속에 埋葬되고말엇슴을 알것이다. [illegible] 國用이 窘迫하야 [illegible] 이 權利의開拓을 主張하나 權數에는 前例의法이 잇섯고 近世에는 具悅……잇섯다 뇌고 하엿다.

그는 또다시 具悅의 權煙說을 敷衍하야 說明하되 『담배의 日用이 水穀과 同然하며 그嗜好가 茶茗보다 尤甚하야 良田美土가 모다 煙田에 드러간다. 그價는 本來 [illegible]과 相等하므로 凶年에는 一把의直이거의 錢錢二三百文에 이르고 平歲에도 一把의價가 적어도 數三十文으로 乃至 五六十文까지하며……終日吸煙하니 [illegible] 下하니 맛당이 專賣하여야 하겟다는바 後世에 반드시 이를 論하는者가 잇스리라 이는竹樹의 遺議를 潤色함이다』뇌고하엿다. 竹樹는 具悅의號로 그는 具悅의 論을 祖述함을 自白하엿다.

그러나 그는 最後에가서 『傳後人知此一轉也』라고 結末을 지여 그욱이 知己를 百世下에 기다렷슴은 얼마큼 悲觀함이엇다. (完)

學藝

批評文學의樹立과그方法 (二)

韓植

오래동안 따로지어온 批評精神과 다른아모創作을 가지고도 洽足하지못하는 批評의 獨自的 本質을 彷彿함이업고는 到底히 이때까지 批評이라면 모든文學分野에 잇서서 第一쉬운것이며 文藝批評의 觀念을 月評, 啓蒙文, 解說學으로 代身하여온 錯想을 打破할수는 업는것이다. 우리들은 今日의

一批一 評에 잇서서 여러가지의 將來를 企圖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그中에 잇서서도 第一로저 이러한그릇된批評과 在來의觀念을 打破하야 그實的向上을 圖謀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批評을 單純한 實讀文이나, 漫畫文, 或은 中學校의 作文敎師의 點數評과 가튼것이 되여서는 안될것이며 또 作品의 解說과 報告에서 지나지못하는 時評문으로 成立되는 것이 아님을알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는, 批評의獨自的地位를闡明하며 그特異한 그것이안이면 發揮치못하는힘을 宣揚하여야하겟다 그러기爲하여서는 무엇보담도몬저 批評은다른藝術部門에 잇서서와가튼 創造하는 機能을 遂行하여야할것이다 곳 이곳에서 말하고저하는文學의批評으로 滿足하는것이안이라, 批評의文學을 創立하지안호면 안될것이라고 밋는다 그리하야 批評은作家와作品의뒤를 따라만단이는 忠僕『산조』가안, 며 또 쩌ㅣ나리습으로부터 依託바든 讚辭以外에는 自己의

一擔一 當하는同僚가업는것 가타 생각하여온 迷妄으로부터 스스로解放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그리하야 創作의한잔르를 堪當하는 藝術家로서의 自信과 自負를 가지지안호면 안될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批評은 여기서 마친내 오래 生하는것이라는 眞理를 理解하는 비로소 限下의 心理로부터 同一한 根本的生命으로부터 發生하는 藝術的 創造라는 全美的判斷과 藝術的 自己自身을 解放하지안호면 안되는 境地에到達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가튼 自己車而을克服하는 時評으로써야만 創造的藝術家로써의 批評文學을 可能케할수가잇스며 이러한때에 이르서야만 批評家는 單純한作家라 作品의 批劣한通譯이라는 身勢를免할수가잇스며 藝術家로써의 創造的意慾을 構成할수가 잇슬 가한다. 이와가튼 批評文學에對한切實한 創作的慾望이 우리들의 日程에 提起되는때에야만 批評의價値를노피할수가잇스며 文學藝術部門에잇서서 除外하지못할 偉大한 批評의機能을 다할수가잇는것이다. 文學의

一眞一 實한發展은 이와가튼批評의生命을 불태우는것을 決코無視하지못할것으로될것이다. 『카-라일』이 獨逸의 文藝批評家에對한 다음과가튼말은 곳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依然히 切實하게 妥當하리라고 생각된다. 『現在에이르러 重要한問題는 大略半世紀前의 批評家들사이에서 그러한것과가티 或은 作品에잇서서의 文體의性質이라든가 比喩의整頓이라든가 情緒의適合이라든가 或은 一般的論理的眞理性에 關한問題가안이고또 主로今日의 우리들批評家中의 卿卿한分子들이普通그러는거와가티 詩人의 特異한性格을, 그詩가운데서 發見하야 이것을說明함으로 容易하게맨드는種의心理的의問題가안이다. 그것은 이두가지問題를 除外하는것이안이라 도로혀 이것을 그가운데包含하면서 그리하야 나아가서當然한 또究極的으로가지고 잇는 그詩가운데 潛在하고잇는本質과 그가가진特異한生命의 火焰그것이問題가되지안호면안되는다.』 이때까지와가튼 到底히 우리들批評家의地位로서는 到底하「批評家는失敗한作家이다」하든가『골스와-지』가『우리들作家는 批評家업시는사라갈수가잇지만은批評家는우리들

一作一 家가업스면 곳죽어버릴것이다」라는

術을抑制하거게 매우困難할것이다. 그와反對로 우리들 批評家들도 作家와마찬가지로 藝術家로서의 自覺과 [illegible]探求에 의길에서 오래동안迷妄하든 觀念을依賴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現實에對한 觀念的說明이 안이고 徹烈한探究이며 旣定된倫理의揷像으로 計算하는것이 안이라 人間과時代와歷史와의格鬪 自己에 對한追求 現實에對한洞察 이와가튼것을 亦是 그性格으로가지지 안호면 안될것이다. 單純한解說, 啓蒙的論文으로써 滿足하는 段階에서 一步前進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批評도藝術家의 한사람이라면 다만時流的問題의『파라푸레이라』가안이라 眞實에 肉迫하는 徹烈한精神을가진『크리틱』에이다」가 되여야할것이다.

漢詩募集

題…松

押…松

限 十二月十日

(薄謝進呈)

「조선어 표준말모음」 (23)

첫재, 가든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분등가리(名)鍋片火鉢 / 부등갱이 / 불땡갱이 / 부손(名)火爐用小鍤 / 부술 / 봇손 / 비게질(名)依搔 / 비비질 / 부비질 / 빈정거리다(動)嘲笑 / 비양거리다 / 비슷하다(形)近似 / 비틀하다 / 비켜서다(動)讓路 / 비텨서다 / 빗터서다 / 싸대다(動)無用奔走 / 싸다니다 / 싸지르다 / 싸질르다 / 싸우다(動)爭 / 싸호다 / 싸움(名)爭 / 싸홈 / 쏘대다(動)奔走 / 쏘다니다 / 쏘지르다 / 쏘질르다

쐐기(名)楔 / 쏘야기 / 쒸애기 / 씀바귀(名)苦菜 / 씀배 / 씌둑씌둑(副)無用話貌 / 씌쉴씌쉴 / 사금파리 / 사금치 / 사금팽이 / 삼발이(名)三足鐵 / 삼발쇠 / 동그랑쇠 / 삽사리(名)狵 / 삽살개 / 사박스럽다(形)粗暴 / 사작바르다 / 사재하다 / 사롱 / 새삼스럽다(形)如新 / 생급스럽다 / 설것이(名)食後整理 / 서롯이 / 가스새 / 설것이하다(動)食後整理 / 서롯이하다 / 서롯질하다

서산나귀(名)大驢 / 서산이 / 성기다(形)粗疎 / 서끼다 / 서운하다(形)悵然 / 서위하다 / 세모시(名)細苧 / 세저 / 소갈머리(名)속(心癖)의鄙稱 / 소갈찌 / 소댕(名)鼎蓋 / 소디앙 / 솔두에 / 솔두께 / 솔뚜껑 / 송곳매(名)錐 / 송고리 / 쇠롱(副)속(全部)의鄙稱 / 쇠배 / 소배 / 소롱 / 수구막이(名)下流不見處 / 수살막이 / 수수께끼(名)謎語 / 수수꺼끼 / 수수꺼끼

수수잡기 / 숭늉(名)밥솥에부은물 / 숭닙 / 숙냉 / 슴미지근하다(形)微溫 / 슴미죽죽하다 / 식칼(名)食刀 / 식도 / 심부름(名)使喚 / 심바람 / 심바름 / 짧다(形)短 / 짜르다 / 짤다 / 쩌르다 / 째마리(名)末滓 / 재치 / 잿김 / 쫏다(動)啄 / 쫍다 / 찌끼(名)滓 / 찌꺼지 / 찌꺼기 / 질레(名)野薔薇 / 지뤼 / 야장미 / 잡구멍리(名)[illegible] / 잡구어네 / 장개비 / 쟁퉁이(名)[illegible] / 쟁팽이 / 저리(副)저쪽으로 / 절리로 / 저롭다(形)[illegible]

절르다 / 절다 / 접때(名)向者 / 저즘께 / 정수리(名)頭頂上 / 정배기 / 좀처럼(副)如干 / 좀체 / 좀해 / 종달새(名)雲雀 / 종다리 / 무당새 / 깡죽새 / 웃작 / 종이(名)紙 / 조회 / 종우 / 종의 / 종희 / 줄곳(副)不斷 / 줄창 / 줄치 / 주먹(名)拳 / 주머귀 / 주머니(名)囊 / 주사니(名)紬緞 / 주속 / 지느러미(名)鰭 / 지네미 / 나래미 / 지저깨비(名)木斷片 / 지저귀 / 지지깨지

차곡차곡(副)整頓貌 / 차겹차겹 / 철따서니없다(形)『철업다』의鄙稱 / 철따구니없다 / 철때기없다 / 초저녁(名)初夜 / 초승녁 / 커다랗다(形)巨大 / 커다마하다 / 탄알(名)彈丸 / 탄환 / 터살(名)『털』의鄙稱 / 터거리 / 털주가리 / 행쇠(名)[illegible] / 행보 / 투박스럽다(形)厚鈍貌 / 투상스럽다 / 퍽(副)頗 / 퍼그나 / 표주박(名)瓢子 / 표자 / 품팔기(名)[illegible] / 품떼죽 / 푸랭이 / 핀잔(名)面責 / 핀둥이 / 해산하다(動)產 / 해복하다 / 허께비(名)[illegible] / 허깨비 / 헛것 / 헛개비 / 헷것

허구리(名)腰左右虛部 / 허구레 / 헛입(名)[illegible] / 허사 / 홍질하다(動)[illegible] / 호갈질하다 / 호박개(名)大犬 / 호바기 / 화라지(名)橫出長枝 / 할때 / 홍글방망이놀다(動)攪亂 / 홍뎅이치다 / 훗날(名)後日 / 후일 / 악다구니(名)互罵 / 악다귀 / 옥다구니 / 알리다(動)告知 / 아르키다 / 알음장(名)通知 / 알림장 / 아롱다(動)[illegible] / 알궁다 / 앙글다 / 아쉽다(形)不便 / 아수롭다 / 아침밥(名)朝飯 / 아적밥 / 아적 / 조반 / 아예(副)最初 / 아이예 / 애에 / 아이(名)兒

아희 / 아해 / 애초(名)當初 / 애시 / 애국 / 애적 / 애저녁 / 애전 / 아시 / 양아들(名)養子 / 양자 / 어끄저께(名)數日前 / 어끄제 / 엉망(名)荒亂錯雜 / 어렵 / 어그러지다(動)錯誤 / 어기어지다 / 얼른(副)速히 / 얼핏 / 얼핀 / 얼풋 / 얼는 / 어려미(名)[illegible] / 얼때이 / 엉덩이(名)臀上部 / 엉덩머리 / 엉치 / 어제(名)昨日 / 어저께 / 엎드리다(動)伏 / 엎디다 / 엎어지다(動)覆 / 엎으러지다 / 어이없다(形)[illegible] / 어이업다

여물다(形)成實 / 영글다 / 영그다 / 영절스럽다(形)如實 / 영지강스럽다 / 여우(名)狐 / 여호 / 여위 / 오막사리(名)小屋 / 오돌막 / 오두막 / 오징어(名)烏賊魚 / 오적어 / 왕벌(名)胡蜂 / 왕퉁이 / 용마름(名)屋頂蓋草 / 용고새 / 옥기(名)相爭性質 / 옥둥이 / 우리가(動)拔汁 / 울구다 / 우엉(名)牛蒡 / 우방 / 워낙(副)顯著、元來 / 원느니 / 원간 / 원체 / 원청강 / 원만금(副)可觀度 / 월만치 / 유착 / 윤월(名)閏月 / 윤달

이리(副)이쪽으로 / 일리로 / 일컫다(動)稱 / 일커르다 / 일름(名)名稱 / 일홈 / 임금(名)王 / 임군 / 인군 / 이무기(名)蟒 / 이시미 / 이튿날(名)翌日 / 이틀날

(2) 첫 말이 같은것

까무러치다(動)氣絶 / 까무러드리다 / 깨소금(名)荏末 / 깨보숭이 / 깨자반(名)荏種油煎 / 깨보숭이 / 꽃술(名)花蕊 / 꽃수염 / 꽈자기(名)細才人 / 꽈보 / 꾀둥이 / 꿀떡(名)蜜餠 / 꿀편 / 꿀설기

거짓말(名)虛言 / 거짓부리 / 거짓부렁이 / 걸가량(名)外見假裝 / 걸어림 / 게정부리다(動)不平言動 / 게정내다 / 게정먹다 / 결기(名)憤激性 / 결머리 / 결따지 / 겹옷(名)袷衣 / 겹것 / 경마잡다(動)執轡 / 경마들다 / 골머리(名)內頭 / 골매기 / 골지다(動)[illegible] / 골바다 / 골켜다 / 고리장이(名)柳器匠 / 고리백장 / 곰국(名)肉湯 / 곰탕 / 곰팡나다(動)黴發生 / 곰팡피다 / 곰피다 / 군티기(名)[illegible] / 군혹 / 귀머거리(名)聾者 / 귀청장이 / 떡보

귀불(名)耳朶 / 귀방울 / 그러므로(副)然故 / 그런고로 / 그르치다(動)錯誤 / 그르뜨리다 / 금띠(名)周邊飾金帶 / 금대 / 금돌이(名)[illegible] / 금속 / 금줄(名)金脈 / 금맥 / 깃옷(名) / 깃것 / 날틀(名)織機用具 / 날추 / 남쪽(名)南方 / 남녘 / 남편 / 내것(名)我物 / 내해 / 냉방(名)冷突 / 냉돌 / 널반지(名)板子 / 널반 / 널조각(名)板片 / 널쪽 / 놋그릇(名)[illegible] / 놋기명 / 유거 / 놓치다(動)[illegible] / 놓트리다

BOOK REVUE

民村의力作 『故鄕』을읽고서

朴英熙

民村 李箕永氏의 近間의 努作 『故鄕』을 읽고 若干의 感感을 말하고저 하는바이다. 이번出版된 『故鄕』은 全部가 아니고 上卷만 나왓스매 全體에 關한것은 勿論 말할수 업스나 上卷만으로도 作者의 作風과 技倆을 充分히 觀察할수 잇슬줄로 생각한다.

回顧하면 民村이 文壇에 그存在를 알리지 이미 十餘年이매 만흔 評家들이 여러 方面에서 論評한바가 잇섯스며, 또한 短篇的이기는 하나 近間에도 『故鄕』에 關한 讚辭가 잇섯스매 도다시 내가 이곳에서 同義反覆하는것을 避하거니와 一言으로 하면, 民村의 過去 十餘年의 文學的 創作生活이, 모름즉이, 이 『故鄕』을 創作하기에 必要한 準備的 過程이엇다고 規定하고십다.

첫재 民村은 누구보다도 農民作家로서 그의特異한點을 보엿슴으로 文壇에서도 特히 注目하엿든것이다. 그는 그동안의作品의 大部分이 農村生活을 題材로 하엿스매 그나타난 朝鮮의 農村生活의 한幅 한幅이다 各各 現實에 適切한 光景을描寫하엿섯다. 지금도 내記憶에남어잇는것은 大正十五年 一月號 『開闢』誌에 『農夫鄭道龍』이다. 지금 『故鄕』을 읽고나서 문득 『農夫鄭道龍』을 생각아니할수 업스니 이 두作品사이에는 技倆의 優劣보다도 民村의 文學이라는 巨體를 對하는 그態度에 큰差異가 잇다.

『農夫鄭道龍』보다、『故鄕』은文學的 圈內에서 完成된 作品이다. 人間의 生活이 主觀的 意識에 支配를 밧는것보다도, 人間의 生活이 人間의 精神的本質에 調和되려는 一便이 또한 엇지안타. 어떠한 主張과 文學觀을가진 作家라할지라도 文學이라는 絶對性을 忘却해서는 아니되는것이다. 그것은 人間의 生活의 狀態가 如何히 變更되드라도 人間이라는 絶對的存在를 基本으로 생각해야 하는것과同一하다. 民村의 『故鄕』은 前日의 作品에 比하면 이 文學的 要素를 完全히 攝取하엿다고 생각하는 點에서 나의 讀後感은 시작된다.

『故鄕』은 자미잇는 作品이다 그보다도 朝鮮農村의 現在의 實景―그들의 生活과 생각을 우리들 아페 一幅의 風景畵와 가티 展開시킨다.

朝鮮의 作家들 가운데 農村을 題材로 하는 사람이 적지안으나 民村과 가티 鮮明하게 印象기피 읽은 사람의 마음속에 눈물과 웃음으로 占領하는 技術을 가진이가 몃사람 못될듯하다.

이러므로 그는 農民作家 됨에 부끄럼이 업다. 「故鄕」에서 보면 그의 素養는 [illegible] 가벼운 어루만지는 諧謔에서 深刻한것을 나타내려고 하엿다. 「나이부한 文章이 農民生活과 가티 單純하고 順實하며 또한 그 描寫이 農村의 自然 그대로 [illegible]하고 多端한가운데서 自然性을 探索하는것이 表裏한가지 [illegible]는 民小說이다. 朝鮮農村의 [illegible] 情景이 實로 『故鄕』에서 生氣잇는 實物로 化한듯하며 때로는 [illegible] 그들의 生活이 『故鄕』에서 우러잇는 希望으로 나타나며、無智한듯이 보이는 그들의 明朗속에 감추인 農民들의 心境을 自然 그대로 『故鄕』은 말하엿다. [illegible] 村靑年들의 苦惱―倫理、道德、戀愛、生活、敎育等 모든 問題가、예전에는 생각할 餘地조차 업서 平和롭든 그들의 마음을 急速度로 撹亂하는 現實에서 매고 混雜하고、流動하고、迷覺하면서도、어두운 神秘속을 떠나가려는것이 이『故鄕』에서는 그들의 生活만을 描出한것이 아니라、그들의 가슴에 기피감추인 心境의 奇像을 펼처노려고 하엿다. 이러한 意味에서 『故鄕』은 農民生活의 縮圖라고도 할수잇다.

近間에 民村의 『故鄕』以後의作品을 보면 文學的 人生觀이 變하엿다. 그리고 봄주이 『故鄕』은 民村의 『故鄕』以前과 『故鄕』以後를 分明하게하는 分水嶺이며 記念塔이라고 나는생각한다 (發行所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一圓五十錢)

一漢詩一

題 重陽 押 香 桐岡 考選

三等之一 高陽郡恩平面梢山里 羅元燮

炎凉迭序趁重陽
南國秋深北雁翔
紅樹連天開錦帳
黃花繞屋幻金堂
龍山自落參軍帽
栗里誰傳處士觴
有約未能逢一笑
待人窓下故彷徨

▼失寵의花壇▲

自畫像 (一)

隨筆

崔仁俊

의레 저녁을 먹고 나면 下宿을 나와서 거리 한바퀴를 휘 도라오는것이 인제는 아주 버릇이 되고 심다. 鋪路 네거리 한복판까지 와서 저녁 여덟시―主人업는 交通整理機 여페 잠간 발길을 멈추고 『오스카、와일드』의 그 華麗한 孔雀표 리 스틱으로 上半身를 비드合이 依文하고 (―그러라고 假想해두고) 그리고나서 멋수룩 한 머리를 힘업서 처드려본다. 一分間. 무슨 豫言者처럼 래일의 天氣를 가만히 占처보고 래일은 나에게 어떠한 光輝잇는 生活을 約束해 줄라는가? 래일은 나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奇蹟을 뵈여 줄라는가? 奇蹟―이미 오래전부터 나의空虛한 마음은 光輝잇고 아름다운 生活의 奇蹟이 눈아페 나타나주기를 애써 기다리건만 亦是 래일의 天氣는 어제 오늘과 가티 曇後晴 晴後曇. 나는 언제나처럼 거이 絶望的으로 머리를 흔들어 버리다. (어느새 머리를 흔드는것마저 하나의 버릇이 되고 말엇는가?) 내가 무겁게 자옥을 떼여놋는발길은나도 못하지안는사이에 진고개로 向해진다. 진고개라면 내가 아는데 까지는 世界的인 코스모포리탄의 有數한거리의하나라고 밋고잇다. 나는 서울의 진고개보담 더 纏綿的인 人口分布와 異國的인 情緖가 濃厚한 거리를 일즉이 한번도 가본記憶이 업다.

그래서 나의 꿈여시 길고 멀고가깝운 그리고 한업시 젊고 짧은 人生航路에 잇서서 언제나 最初와 最終의 寄港地인 이진 고개는―어제는 香港이엇고오늘은 『마르세이유』 래일은 ? 나도 모른다. 래일에 내가 걸어갈 그 거리、그 闇은鋪道우에 가볍게 억개를 두다리는 가느단 보슬비가 촉촉히 나려주면 얼마나 조흘라? (아아、그러나 나에게는 내 입에불려줄 『마토로쓰·파입』이 업구나!) 래일에 비가 나릴 未知의 港口 未知의 그 거리에는 분주하게 오고 가는 수업는 사람들이 모두 처음 보는 낫선얼골뿐이다. 運命(―이런말을 한다면) 어떤機會에 한번 억개를 슷치고 지나가더래도 그네들과 나는 다시는 永遠히 만나보지 못할그러한 運命을 저마다 제어개에 짊머진 그야말로 永遠히 融和할수 업는 異國人이다. 事實로그네들은 나와 全혀 人種이 다르고 國籍이 다른 그러기때문에 나와는 아모런 血族關係도 차저볼수업는 生面不知의 外國人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色彩가 요란스런 中國服色을 몸허리에 친친감어입은 嫩妖한 모단껄이 갑작게 내던지는 코켓슈한 秋波에도 素朴하게 호리러분한 눈초리를 빼앗기여서는 아된다. 혹시 나비처럼 輕快한 기모노오의 닶은 『소데』가 여업 내빰우에 스치여 주더라도 나는두손으로 잔득 코를 옹켜쥐고 매캐한 분냄새를 맛지말자. 그리고 코스날이 웃둑 서고 氣骨이 늠름한 西歐의 점잔으신 紳士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진실로 그러케 하고저한다면 맨발벗는 나의 발등이라도 딛고 넘어가라. 발등우에 구두징알이 박혀서 無慘하게 피가 나드래도 나는 이를 악물고 참어보리라. 참어 보리라.

新刊紹介

▲神學世界 第二十一卷第五號 發行所 京城府帝泉町一一 神學世界編輯部 振替京城 四六四〇番 定價二十五錢

▲朝鮮與信報 第八十號 發行所 京城府旭町二丁目五一 朝鮮與信所 定價一年六圓

▲商業界 第一卷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朝鮮商業社 振替京城二五五四八番 定價十錢 送料一錢五厘

▲映畵朝鮮 第一冊(內容)活動寫眞映畵俳優人 朝鮮劇作家群像 劇映畵人들의 初戀時代=孫勇進 外諸氏 世界的映畵監督소련버 來朝特輯 詩 創作 小說 隨筆 스켓취 等其他 發行所京城府瑞麟町二六映畵朝鮮社 振替京城二五五二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一錢

▲(譯註)解註地藏經 安震湖著(目次) 忉利天宮神通品 分身集會品 觀衆生業緣品 閻浮衆生業感品 地獄名號品 如來讚歎品 利益存亡品 閻羅王衆讚歎品 稱佛名號品 校量布施功德品 地神護法品 見聞利益品 囑累人天品 地藏經法數 地藏經 地藏經義譯 地藏讚文等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八 卍商會 振替京城 一二三六三番 定價一圓二〇錢 送料 八錢

▲月刊ロシヤ 十二月號(內容)北支と抗日人民戰線、ロシヤはスペインに干涉するか、支那抗日戰線の擴大、座談會=歐洲政局の危機とソ聯の動向、新興民族の全貌、西伯利亞日記抄等 其他 發行所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〇八番 定價三十五錢 送料一錢五厘

▲예수 十一月號 發行所 平壤府下水口里九〇 예수교회中央宣道院 振替京城 一一二三六五番 定價十二錢

▲基督敎報 第八十三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〇番 定價一年一圓五錢

讀者社交室

▲今月十九日社交欄을通하야 天才의素質과 아름다운創作界를차지할學徒들이 可惜히썩어감을 愛歎하여『게명초』을붓치난 그분에게 同感합니다 先進을宣言하시며 끗까지扶助하여주이겟습니다 咸鏡線龍潭洞 金龍本

▲社交室을보시는讀者先生中에 [illegible]講義錄을 發行所를아시면은 社交室로알녀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慶北浦項邑仲町 [illegible]

▲讀者諸氏中에 [illegible] 게시면 協力하야 基礎工作에邁進합시다 贊同하시는분은左記로 通知하야주시면 直接面談이나書面으로 반가히應對하겟습니다 京城府內需町一六 宋江

▲特히京城府內讀者諸兄께抑問하오니 府內某自轉車店에 從事하는鄭雲鶴君(三〇)(昌和)을아는兄은 本報社交室로通하야住所를下敎하시면無限感謝하겟습니다 (鄭雲鶴이消息傳하라) [illegible]

▲大正三年度 京城旭町二丁目朝鮮古書刊行會에서刊行한『東文選』共七冊中 第一卷(一卷부터廿五卷까지分)을買入코저하오니 讓渡하실분이게시오면 左記住所로通信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平北義州邑北校洞 朴松山

▲老少學生同樂으로 [illegible] 李昌培先生任이시여! 只今은片倉商會立石出張所主任으로 榮轉하섯다지요 伏願컨대速히 [illegible] 順安舊前夜學校長으로계시면서 [illegible]

▲讀者諸氏에게 問議하옵니다 저는音樂家가 되랴하오니 本社交室을 通하야 배우는 方法을 알리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內永登浦町 一讀者

▲社交室諸賢中 宿屋에困難하시는분이 게시면 本人의實所로 知하여주시면 多少便利를圖謀하여드리겟습니다 待遇는 家族同樣이며 房은 工夫하시기에 便利함니다 橋南町一三七 M 生

▲꼬롬비아蓄音機新品 [illegible] 定價二十五圓자리를 事情에依하야 廉價로讓渡코저하오니有意하신분은 此欄을通하야 住所氏名을 알니어주시옵소서 市內 尹讀者

▲讀者先生님들中에서 [illegible] 試驗手續 試驗時期가 어느때이며 年에幾回이나되는지 아시는 분이게시면 [illegible] 下敎하여주시면 [illegible]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短篇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illegible] 한글로 떼여쓸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illegible]圓

◇戲曲 三幕以內 四百字原稿紙 七十枚以內[illegible] 上演할수잇는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illegible]圓

◇詩 長短은 制限이업고 一人[illegible] 賞=一等一篇 五圓、二等若干篇 [illegible]圓

◇時調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民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童話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떼여쓸것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童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野談 四百字原稿紙 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字句를 떼여쓸것 賞=一等一篇 卅圓、二等一篇 十五圓

◇傳說實話 그內容은 오직 [illegible]에關한것으로서 制限하되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注意(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코 一切返還치안함 보내실때는 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쓸것)

朝鮮日報學藝部

連載野談 (一一三)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죽기술원 (三二)

리선전관이 주인집에 돌아온 뒤 검지사의 은혜를 무한감사히 생각하는중 또한 마음에두가지 괴로움이잇스니 하나는그 동사 시험에 끼지못할가하는걱정과 괴로움이오 또하나는 김지사절의 태도이엇다.

『허허. 검지사는 진실로 나의 은인. 그러기를 그은인의 철으로써 나에게 이상한 눈치를 보이는것이 분명히 조흘 중조가 아니오 또한 호사다마(好事多魔)가 되는것. 그럴도리가잇나 그럴도리가잇서。 은인의 애청을 내어찌 그럴도리가잇서. 천부당 만부당한일이어늘 그는 내게 이상한눈치를 보이니 이일을 장차어이하리。』

하며 리선전관은 혹히 검지사의 철이 이상스럽게 구는것을 도리혀 큰 걱정으로 생각하얏다。

하야 먼저 장중에 륙량전을 메어들고 당기새 그강한 활등이 마치볼에 조허 에교와가티 능청능청 휘어들며 엔량무거나 되는 그활줄이 가벼운 새털과가티 빨리나가 일백오십보(百五十步)밧게잇는 관역을 마치되 세대활살을 모두 규정(規定)에억임엿시 마첫다。

그다음에 백근철퇴를 내두르기를 적은방맹이와가티 가볍게 내두르고 륙십냥중 포구를 던지기를 마치 조고마한 조각돌로써 돌팔매를치듯하며 태도창을 내두르는법이 또한몹시빨리 그 그림자가 한줄기번개불과 가트니 보는사람은 누구나 간담이 서늘치 아니한 사람이 업섯다。

이때 인조대왕께서 리선전관이 범과가티 날뛰고 제비와가티 날새게 구는양을 보시다가

『저 장사의 성명이 무어인고』

하시며 리선전관을 대청아프로 가까히 불으라하셧다。

이때 신경원은 먼저 약속대로 리선전관이 대청아페 국궁하기 전에 그 전후사정을 자서히알외엿다。

인조대왕께서는 신경원의 알외임을 자서히 들으신뒤

『허허。 그런 장수를 일죽 부르지못한것은 모두 내의 큰 허물!』

하시며 리선전관의 힘과 재조를 크게 칭찬하시고 친히 하신뒤 특지로써 병조정랑(兵曹正郞)을 제수하시고 그나머지 장사로 뽑힌사람들은 일률로(七品)에 남우위잇게하시니 그들을 가르처 국출신(局出身)이라 하얏다。

리선전관이 마저죽으려든 몸으로써 뜻밧게 특별한 성은(聖恩)을 밧는것도에 오히려 감개무량한 눈물을 금치못하는 마음으로 사은(謝恩)숙배(肅拜)한뒤에 먼저 김지사를 차저 두번절하고 그은혜를 칭송하얏다。

이에 김지사도 매우 기뻐고 새 리선전관을 향하야 다시 특지로써 그와가티 좋은에 올것을 치하하고 이어서

『그런 영감이 특지의 은총을 밧잡게되것은 첫재로 국은이 지중하신것。 다음은 영감의어지신 마음의 은혜이 어허온 몸이 무슨 공이잇서 영감의 치하를 밧자오리。 하엿든 우리가 서로 만나기된것이 이상한 인연 그 인연을 밑우워 이러온몸이 마음에 먹은바를 영감께 부탁하려하오니 다행히 저바리주지 맙시요。』

하고 그원을 풀려 주압을 쥰비며 가지고 오기를 말하얏다。

그런데 검지사첨은 하로걸러 가진 찬합과 조혼술을 보내며 안부를 뭇고 또는 솜씨잇게지은 의복까지도 사흘이 멀다하고 새로 지어보내기도하며 번저 입다가 버서노흔것은 정히 빠라 오기도하얏다。

리선전관은 그의후 그찬합과 술을 밧게될때 마다 진심으로마음이 괴로웟다。

리선전관은 이럿듯 두가지괴로운 마음으로서 지내는중 어느듯 금풍이 소슬한 느진가을을 당하얏다。

어느날 인조대왕께서 과연 훈련원에 작괴하시고 훈련도감(訓練都監)、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총융청(總戎廳)、수어청(守禦廳)、오영문(五營門)의 군관과 그밧게 도감포수(都監砲手)를 모호시고 그힘과 재조를 친히 시험하시게되니 그모혼 사람의 수효가 확천명에 일으렷다。

이에 장궁(長弓)과 륙냥전(六兩箭)이며 태도창(太刀槍)과 백근철퇴(百斤鐵槌)며 또는 륙십냥중의 포구(抛球)등을 벌려노코 차례로불러 각각 재조와 힘을 뎌지게하엿다。

이때 리선전관은 정신과 힘을 한데 모호면서

『오오、다시 엇기 어려운 이 귀중한 내일생의 영광과 목이 이날 이자리에 달렷것을。』

하며 자긔일흠을 부른기만 기다리고잇섯다。

그러다가 과연 나중자긔를 발

報道戰線 유니버쌀社 作品 [illegible]主演 [illegible]

全米에 漲溢하는 興行界의 不安相
失業樂士示威開始

『산音樂을 劇場에 復活시키고 우리들에게 職業을달라!』라는 스로-간을내걸고 아메리카樂士同盟에서는 示威行列을開始하얏다 이樂士同盟은 一萬六千의會員을가지고잇는데 大部分이 失業者이다 그러나 그들은 會員中에서 二十五萬弗의據金을 가지고 目的貫徹을爲하야 싸우고잇다 아메리카勞働總同盟은 樂士同盟의데모를 支持하기로 決議하고 全國加盟團體에 指令을 發하얏다 이運動은 지금終林에서 이러나라고하는 俳優組合의 動搖와아울러 米國興行界에 적지안흔 波紋을던지고 樂士同盟에서는 會員中으로부터 五千名의 鬪士를選擧하야 各支部에配置하고街頭데모를敢行하고잇는데 그 先陣으로서 九月初旬뉴-욕 「오페라하우스」는 大會를 열고뉴욕重要 映畵館아페서 데모를하엿다 그때뉴-욕市長이 데모에 멧세이지를 보내고 이것을支持한것은 注目할만한일이다樂士同盟의 데모가일어난 原因은 그들의 失業이直接原因인데 토-키의 全盛을 따라서各興行館은 樂士가 必要업시되고 財界不況으로 採算이 되지안어서 樂士들全部免職시키엿스나 지금은財界의 好況과아울러 採算도될것이며 觀衆의산音樂에의要望이高調되고잇스니 지금은 失業한樂士를 舞臺에 내세워도 될수잇다는것이다

樂士同盟에서는 一般大衆의支持를 엇기爲하는 努力하는一方 全國的으로 그들의態度를聲明한文書를 撤布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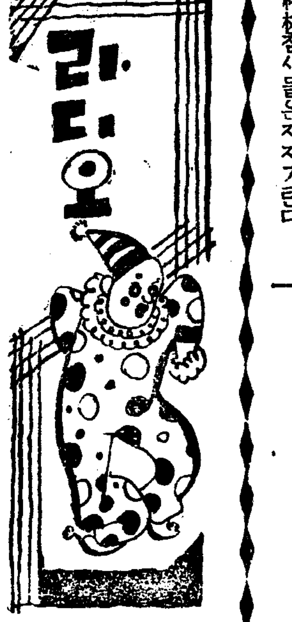
新劇功勞者小野氏 築地小劇場葬擧行

日本新劇運動의功勞者 故小野宮吉氏의 葬禮는 小山內薫氏의 例에依하야 築地小劇場에서 築地葬으로 卄五日午前十時半부터 同劇場에서擧行되엿다 當日은久米正雄井上正夫 中條百花子와新協 新築地新進座等의新劇人三百餘名이 參席하엿고지금 在露中인 土方與志 佐野碩氏等으로부터吊電이왓스므로所轄築地署와 特高課員이多數出動하야 警戒를嚴重히하얏다

映畵界揷話

◇타프딴스 잘하기로 有名한 「에리나-포-엘」別名을 "뎅"이라고한다 그女子는 하로종일 춤을추고 밥먹을때는 목욕탕에 발을담그고 밥을먹는다 이것이 그女子의健脚第一課라 한다 그리고 그女子는 또한 동모들에게 딴스가르키기를 질겨하야서 그女子를 訪問하는 동모들은 "노크"대신에 문밧갓에서 타프딴스를한다 발소리로서 저것은 누구? 이것은 누구라고 區別할수잇다고하니 그女子의生活은 全部가 타프딴스로 武裝되여잇다

『짜-넷트·막드낼드』와 『지이몬드』의두사람은 都合五臺의自働車를가지고잇스면서도 남몰래 『아베크』할때는 運轉手가 아는사람이라 재미업다고 밧듯이라 씨-를 불러탄다하니 이러케되면 自家用自働車는 녹이슬것다고 終林참새들은재재거린다



三十日(月曜)

◇午後六時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가을밤 二、齊唱 별과개 三、獨唱 외나무다리 四、齊唱 담모퉁이 五、獨唱 팍고닭이 六、齊唱 조각배、꼿방석 七、獨唱 쫏겨난오두 八 齊唱 남남이
旺新學院兒童 伴奏 金泰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中央高普 李常薰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在滿朝鮮人의就籍에對하야』 總督府事務官 宋燦道

◇同八時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자진배다라기 三、황해녕불 四、풍년가 五、경풍락령 六、녕변가 鄭綵桃 細笛 高載德 奚琴 李恩善

◇同八時三〇分 野談 "돌아지는맛돈" 申鼎言

◇同九時 音律 一、平調會相 二、吹打 三、興民樂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六時 (城) 大鼓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山形) 俚謠
◇同八時二〇分 (東) 物語
◇同八時五〇分 (名) 俚謠
◇同九時〇五分 (東) 和樂合奏

一日(火曜)

◇午後零時五分 (東) 하-모니카合奏 全日本하-모니카聯盟合奏團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 물이야기 中央高普 沈亨弼

◇同六時 童話齊唱과獨唱 一、齊唱 중중때때중 二、獨唱 해금강(姬) 三、同 징신짝(玉) 四、齊唱 소낙비삼형제 五、獨唱 저녁(姬) 六、同 귀뚜라미(玉) 七、同 수레(姬) 八、同 두루미(玉) 九、齊唱 반달
京城어린이放送會 伴奏 姜俊熙 獨唱 金順姬 同 金順玉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 經典解說『菜根譚』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講演『防火데이를當하야』 京畿道保安課長 鎗鋼春

◇同八時 달거리外 一、달거리 二、청춘가 三、오돌독 四、멀망아리랑 五、노래가락 六 창부타령 李眞紅 姜梅紅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哀傷의가을 二、女子의마음 三 즈막서름 四、靑春도한때 五 浦口의落照 六、靑春行進曲 薛道息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五五分 唱劇調 一、斷歌 巖命歌 二、唱劇調 沈淸歌中 丞相宅가는대 李東伯 鼓手 丁元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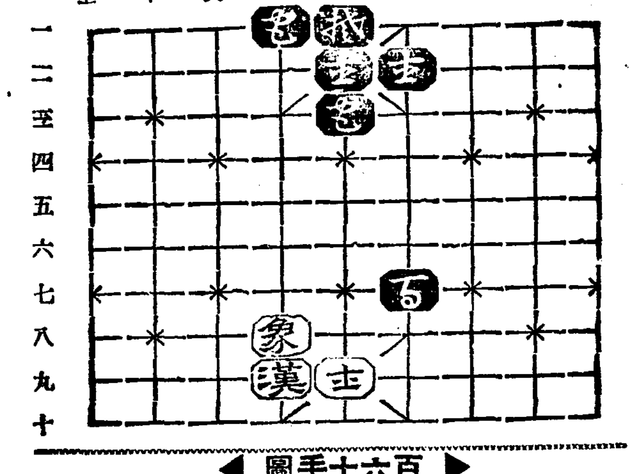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京) 하-모니카
◇同六時 (東) 童話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二〇分 (東) 新內
◇同八時五〇分 (城) 三曲
◇同九時五分 (大) 歌謠曲

★曆★ 十二月一日(火) 陰己亥十月大(十七日) 丁巳·土·齊·破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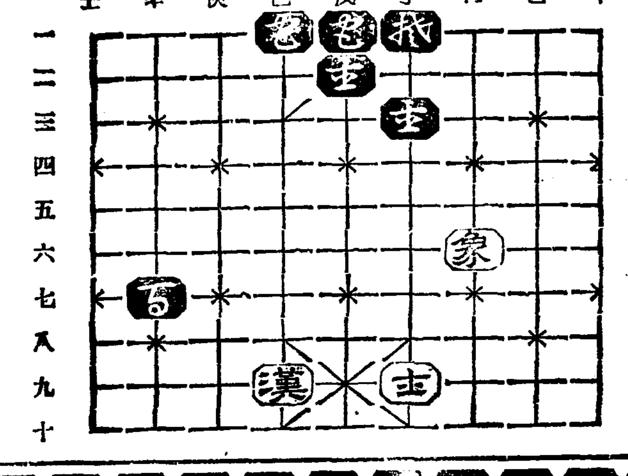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十)

兵一級 漢先手 李在鳳 對 盧世願

百五十手圖



百六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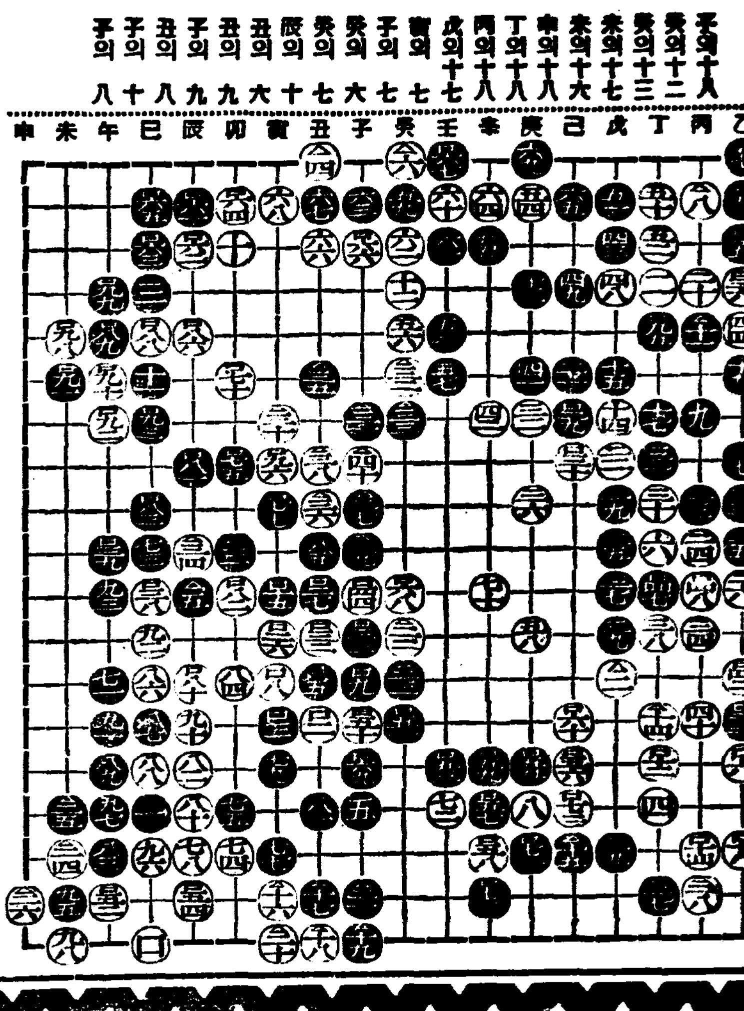
己六象-辛五 丁七四-己六呼將 辛五象-己八 戊一四-丁二 戊九士-丁八
戊三四-戊一 丁八士-丁九 己六四-辛二呼將 己八象-丙六 丁二四-丁五

觀戰者談 白은 未의十七로 黑一點을 取하고 黑은 丁의十八로 延及할을 比較로 看做되고 黑丑의六點進함을 白이 丑의九로 黑四收를 逼迫함은 妙理가 略存하다 均衡平盤에 決在誰手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4—

白 蔡禧文 黑先 權 ...

●二一 癸의十八 ○二二 癸의十二 ●二三 癸의十三 ○二四 未의十七 ●二五 未의十六 ○二六 申의十八 ●二七 丁의十八 ○二八 丙의十八 ●二九 戊의十七 ○三〇 寅의十七 ●三一 子의 七 ○三二 癸의 七 ●三三 癸의 七 ○三四 辰의 十 ●三五 丑의 九 ○三六 丑의 九 ●三七 丑의 八 ○三八 子의 八



十二月號 (發賣中) 女性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 振替五八七八 特輯號

一席話 (어머니、안해、누이에게) 金炯元
延日池와 細鳥娘 …… 車相瓚
朝鮮女流文學의新發見 鷺山
보헤미안旅路에나는지첫습니다 …… 洪陽明
당신이떠난지도이미十年이외다 …… 李鍾模
맛나자떠나서消息업는順伊에게 …… 李秉珏
(떠나간이에게 보내는편지)
孫、南兩君結婚觀 一記者
女學校時節의로맨쓰 …… 李應淑外諸氏
設問에對한그들夫婦의對答 一、두분이 討論해서 보낸것과 선물은 二、혼자서 몰래 보내실것 三、두분이 서로 주고밧으신 선물은 朴致祐氏夫婦、金復鎭氏夫婦、朴英熙氏夫婦、容氏夫婦、李源朝氏夫婦、金煥泰氏夫婦、朴承極氏夫婦、劉彼得氏夫婦、李孝石諸氏
表紙·扉畵·挿畵·安夕影
詩歌 湖水 …… 吳章煥 이밤어너무길지안습니까 李夕汀 無題吟五首 …… 金午男 비오든그날外一篇 白菊喜
文人과除夜
交響樂의밤 …… 李孝石
昨年그믐날日記 …… 李軒求
除夜의勝負 …… 金文輯
哀話 雙舞曲 …… 金惠順
實話 女學生의그릇된戀愛 李貞子
書報 겨울의京城 의昌女子 마음의姬中 嬢과等 閨韓學校 秀慶花形選 麗喜女 姿嬢手 高女花培及高女明進드레파건
漫文漫畵 歲末家庭風景點描 …… 崔永秀 月給쟁이初年兵 …… 李周洪 女性「아기차지」 …… 林鴻恩
家庭讀本 겨울의婦人衞生 …… 張文卿 主婦여平和의女神이되라 …… 宋今璇 十二月의美容 …… 吳淑根 男子세-타는어떠케짜나 …… 金順喜 利用經濟學 …… 林誕生
性·生理·學 …… 鄭槿陽
렌의哀歌 …… 毛允淑
겨울밤追憶되는映画 朴基采
送年特輯 膳物의常識 …… 崔富林 歲末主婦메모 …… 安小任 쎈타크로스는 무엇을가저오나 …… 愛羅
내論稿의旅程 金基錫
山居 李源朝
꿈을깨면窓박게눈이왓습니다 白髮生
今年度女流創作總評 白鐵
令孃日記 女教員 金玉禮
送年創刊特輯 短篇小說 술푼이야기 金裕貞 短篇小說 숨 姜敬鄕 長篇小說 안해 (2回) 安夕影 短篇小說 逢別記 李箱
美人과社交 洪鍾仁
生月判斷。女性界消息。內外珍聞。例外의珍職業。지마섭소
女性巡禮記 (慶尚道篇) 十三道 李相昊
名士諸氏의結婚當時 尹致昊氏 趙東植氏
우리學校자랑 (同德女高篇)

咸南火田村의
可驚할幼兒死亡率
出生者의三六%
平均死亡率의八倍의多數로
營養不良等에基因?

【咸興】함남도의 화전민(火田民)의 보건대책으로 저번 도위생과에서 현지에 의사 간호부 약제사등을 파견하야 그보건상태를 조사한 집계(集計)가 요지음 작성되엿는데 그중제일주목을 끄으는만큼 한것은 화전민의 유아(幼兒)들의 극히 높은 사망률을 갓고잇는점이라고 한다 즉 갑산군보천면청림동(甲山郡普天面青林洞)의 일년간생산자일백오십삼명에 대하야 사망이 오십륙명 즉 삼십륙퍼ー센트률이라는 다른데서 볼수업는고률을 보이고잇다 이것을 소화십년도 함남도의 사퍼ー센트률에비하야보면약팔배의 다수가 된다고한다

이에대하야 도위생과장은 유아(乳兒)가인유(人乳)가업슬때에 보유(補乳)방법을 알지못하야 이러케만흔 사망률을 낸다고한다

그러나 화전민의 생활은원래원시적(原始的)에 가까운 생활상태인우에 겸하야 최근수삼년간은 흉작으로 영양부족이 그원인이 되지안흘가도 추측된다고하며 하여튼 화전민의위생보건상 장래가장주의하여야할 중대한점이될것이라고한다

葉煙草의豊作

【平壤】평양지방전매국에서는관내의 엽연초(葉煙草)경작지인성천(成川)사리원(沙里院)직할(直轄)등에 수납반(收納班)을 파견하여 금월십오일부터 수납사무를 시작햇는데 금후의 호조와 시도와 경작자가조와서수납수량은 오백만킬로를 예상하게한다

따라서 배상가격(賠償價格)도 작년총액 구십만칠천원으로훨신뒤어 백오십일만여원에달하엿고 이금액이 이만이천여명 경작자들의 주머니를 불리게되여 농촌경기를 유혹케햇다

墨湖港開拓
土地買收活動

【大浦】삼척무연탄 반출항을목표로 강릉군 망상면 묵호항(墨湖港)으로 변경되자 강릉 삼척 량 군민사이에는 편입운동과 제지책강구로 각자의 지방을위한일들이 생기며 잇다함은 루차 본지를 통하며 보도한바잇거니와 지난이십오일에 강릉군수는 청원을 대동하고 양양군내에 출장하야 양양주민으로서의 묵호항근방에 토지매수교섭에 활동중이라는데 인민간에서는 말성이 만흔 문제이니만치양군간의 금후진전을 크게주목한다고한다

平壤思想觀察廳
第一代輔導官
齊藤檢事로選定

【平壤】사상범보호관찰법은 십이월초순경발포를보게될터이므로 평양보신범원에서 장차생겨질평양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에 배치할인원을 선정중인데 제일대보도관에는 제등(齊藤)검사가 임명될모양이다 이하게 보호사(保護司)서긔(書記)고원(雇員)통역(通譯)급사(給仕)소사(小使)등도 긔한명식 배치될모양이어서 제도발포와동시에 발령을 볼터이라한다

多收穫表彰式
信川水組에서

【信川】신천수리조합(信川水利組合)에서는 금번에도 예년과가티 동조합구역내에서 집합묘대공동경작회(集合苗代共同耕作會)급수도다수확경작회(水稻多收穫競作會)를 실행하고 심사(審査)한결과 각히등급을사정하고 지난이십팔일 동조합에서 상품수여식을성대히거행하엿는데 특히 조선식산조성재단(朝鮮殖産助成財團)으로부터의상(賞)자에부상(副賞)이잇섯스며 금번의상자는 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 集合苗代共同耕作會 [illegible]

一等 水稻多收穫競作會 [illegible]

國防、鐵道等關係로
普通江改修實施
第二人道橋架設도確定的
大竹內務局長平壤서言明

【平壤】평남도민이 긴급사업으로 그실현을 요망하고잇는 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보통、대동강의개수(普通、大同兩江改修)진평남도로포장(平南道路舖裝)문제등 남포상수도(鎭南浦上水道)문제등이 명년도부터 착공이되는가、어떤가를 대죽(大竹)내무국장에게무르니 이십팔일밤 다음과가티 이야기햇다

진남포의 상수도문제는 인명(人命)에관계되는사업이니 아모케해서라도 명년도부터 착수하지안흘수업서 총공비백이십만원중 총독부에서는 사분의일을 보조하기로되엿다 보통강의 개수는 공사비가 학만원을요하는데 이것은 평철(平鐵)의 신설조차장(新設操車場)과 국방(國防)의 관계도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반다시 시행할의향이다 대체오개년계획으로 완성하게되엿스나 언제라고 단언할수는업다

평양、남포간의 도로포장은 실지로보지못하고서는 이야기할수업스나 철도와대동、보통강의 수운(水運)도잇스므로 그리급하다고는 생각되지안흔다 다못 만포、평원량선이 전통하여 물자가폭주할때면 당연히 포장도하겟지만은 위선경성、인천간을먼저하고 평남간을해도 늣지는안흐리라고생각한다 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는곳 가설한다 이、삼년걸리겟고 그리고 대동강개수에대해서는 그러케까지 급한일이라구는 생각되지안는다

道內十餘渡船場에
橋梁架設을計畫
明年度부터着工準備

【平壤】평안남도에서는 명년도부터 십개년계획으로의개수、어항개축(漁港改築)지방하천개수(地方河川改修)교량(橋梁)등의개설등토목사업을 시행할계획을세우고잇는데 여기에요하는 일천팔백만원의거액에 달하는터이므로 총독부의보조를 요구하기로되엿다 이가운데에서 가장긴급을요하는것으로는 교량의가설인데 비가조금만오면 가하천은 범람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방민의 손해와 불편을 주게되는관계상 이문제를 해소할필요를 늣기어 도내의 일、이십등도로에 십오개처의 도선(渡船)을가지고 교통하는 장소전부를 교량을가설하려는것으로 총독부에서 승인이잇는즉시로 명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할준비를 하고잇다한다

內務局長을訪問
平壤發展懇談

【平壤】평안남도사무검열을 하기위하여 래평중인 대죽(大竹)내무국장을 이십팔일오후한시반부터 부내민간유지 福島莊平、松尾六郞、李基燦、崔鼎默、松井民治郞、鄭觀學 씨등이 부청으로 방문하고 시야(矢野)부윤까지 가담하여 약한시간동안 회담을 햇는데 그 간담의 내용은 평양의명일에 대한

一、平南國鐵急速實施

一、大同江改修

一、普通江改修

一、平元線의促進

一、無煙炭의 [illegible]

등을 지청간담하엿고 대죽내무국장도 만흔의 지지를 하엿다한다

靈岩郡始終面에
不正事件綻露?
警察에서取調中

【靈岩】지난이십사일에 령암경찰서 박(朴)사법주임외게원 손(孫)량씨가 동군 시종면(始終面)에 사복으로 출장하여 동면서긔 김긔용(金□用)(假名)을 동면주재소에 소환하여다가 량일간을두고 엄중취조하엿다는바 아직도 사건의단락을 보지못한만치 사건의진상을 비밀에 부칠으로 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모방면에서 들은바에의하면 전긔김모가 다대한 공금횡령의혐의를 바든것이라는바 이런한 부정사건이 탄로된것이나 아닌가하야 매우주목하고잇다한다

新車購入絶望
電氣料金減下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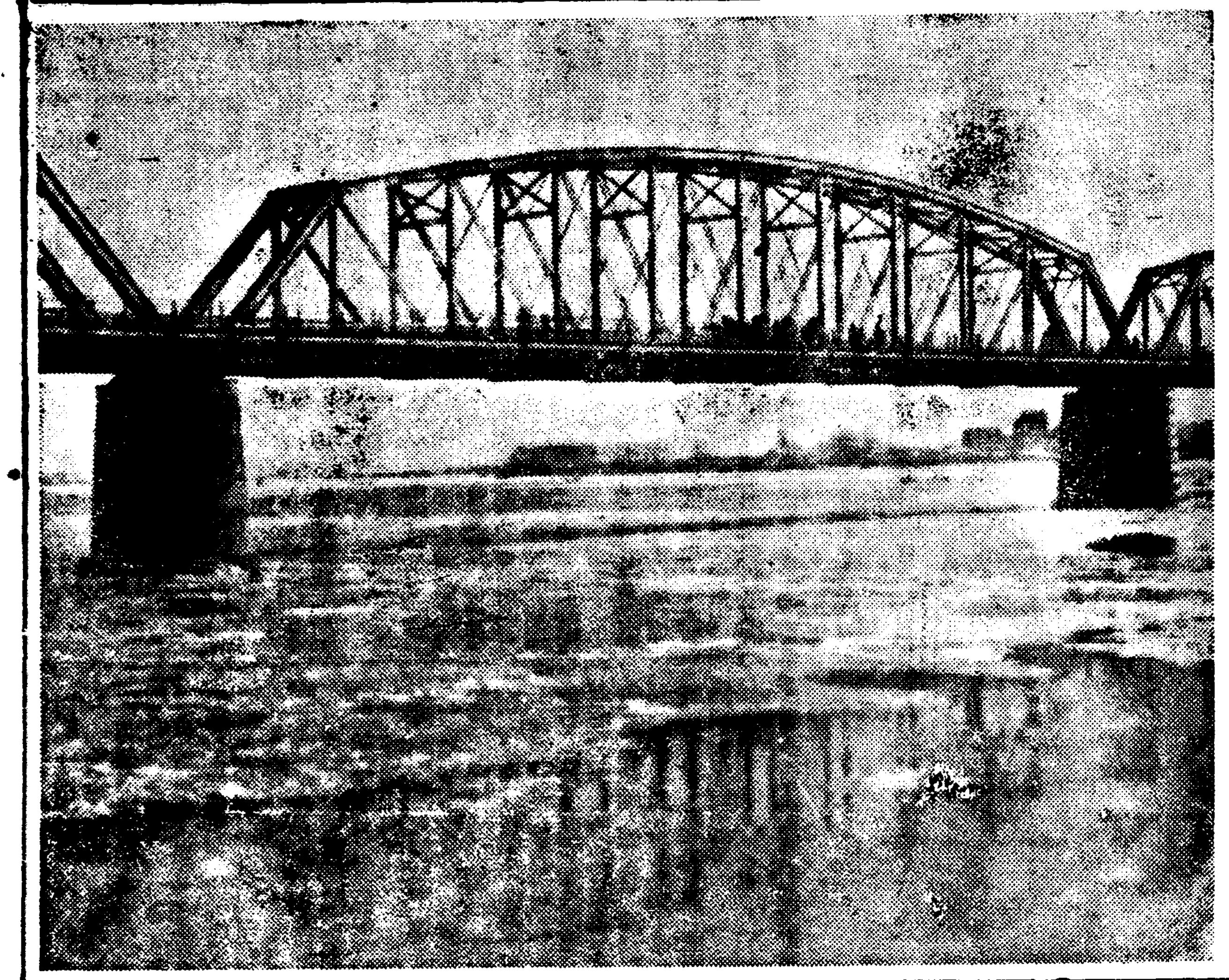
【平壤】평양전차는 명년도에도 신식으로보기는전차를 수대구입하기로 되엿고 따라서평양의 복잡한 교통량에 대하여『써ー비스』하기로되엿스나 명년의전긔료금감하로 십만원이상의 감수를면치못하게되여 한대에 이만오천원식하는 신형전차는 살수업게되엿다 이때문에 할수업시 고물전차를안이운전할수업게되엿다한다

五百餘共軍部隊
滿洲國軍과激戰
雙方이모다戰死傷이數十名
臨江縣界人心騷亂

【咸興】이십팔일하남도경찰부입전 지난이십칠일오후한시경 공산군양정우(楊靖宇)의일대오백여명과 림강현변지로 토벌출동중이든 만주국정규병(滿洲國正規兵)과 동현산간지에서 충돌되야 약두시간에빼쳐서 격전(激戰)끄테 공산군측은 응원대의도착됨을기다려 수십명의전사자를 근거지(根據地)로 옮겨수용하엿는대 이싸홈으로인하야토벌(討伐)군측도 이십여명의 전사상자를 내인 근래에보기드믄 대격전으로 부근일대의인심은 소란을극하고잇다 한다

交通量으로본
平壤의躍進狀

【平壤】평양부전차과에서 소화륙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승객이 가장 적다고 생각되는 시긔인 시월일일마다 전차승강객의 동계를 조사한결과 소화륙년 시월일일에는 북행 사천팔백팔십칠인 남행 사천칠백삼십팔인이든것이 금번 시월일일에는 북행 일만이천백팔인 남행 일만일천칠백팔인인 합계 이만삼천팔백팔십구인에 달하여 오년간에 이배강(二倍強)의 증가를보혀 약진평양의 교통량의증가는 놀나지 안흘수업다 또 십일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동교(大同橋)를지나 사동(寺洞)과 선교리(船橋里)에서 전차를 타고나리는 수효도 륙천백십인에 달하여 작년의 오천이



鴨江上엔벌서流氷
筏木船舶모다禁足

【新義州】지난이십칠일 국경신의주에는 륙속이십미돌의 북국의매렵한 바람이 어름을 실고 모라와 전시가를휩슬엇다 간판떠러진집과 전긔고장이 생긴집이 부지기수며 그우에 멜고쌀쌀한 눈까지 떠부서 긔온은갑작이 령하십이도까지 나려갓는데 작년이때 령하칠도에비하면 실로 오도가량 나려갓스며 이십팔일에는 압록강에 류빙(流氷)이 꽉끼여서전날의 따뜻한일긔에 마음을 노코 항행하든배와 떼목들은 어름에 끼여움직이지를못하고 구원을 부르짓고잇게되엿다 (사진은 압록강의류벌광경)

靑德面市場을싸고
兩派가對立爭奪
兩方모다連署로當局에陳情
一般은當局處斷注目

【草溪】경남합천군 청덕면(青德面)시장은 작년팔월에 도당국의 인가를어더 동면적포리(赤布里)에다 개설하얏든바 일변도채되여 지난여름 폭풍우로인하야 특심매몰되여 다시안전지대로 이전한다는설(說)이 잇자 동면두곡(豆谷)하회(下會)삼학(三鶴)외팔개동민들은 시장을 두곡리에 이전하여달라고 지난이십륙일에 이천여명 련명으로 면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되자 현시장소재지인 적포동민들은 만일시장을 전긔 두곡리에다 이전하게되면 현시장가에잇는 이백여명 주민들은 호구(糊口)할길이 끈허진다고 대표들이 이십칠일에 면장(面長)을 방문하고 시장이전반대 진정서를하게되여 정세가매우 험악하여감으로 일반은 면당국의 처사를크게 주목한다고한다

下聖公立普校
學年延長運動

【新院】황해도재령군하성면(載寧郡下聖面)에잇는 하성공립보통학교(下聖公立普通學校)는 사학년제임으로 학령아동의 반수도 수용치못하야 일반유지들은 항상유감으로 생각하야오든바 금방유지들이 회합하야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곳 동유재산(洞有財産)칠천여평을 제공하야 적극적활동중이라는데다수히 의연금을하사한제씨는 아래와갓다고한다

三菱鑛山 三百圓　大倉組百圓　金基秀氏百圓　金甫一氏 百圓　下略

工業咸南의躍動
年産千三百萬圓
釀造二百九十萬圓이首位
油脂가六十五萬餘圓

【咸興】공업함남의면목을 여실히엿보여주는 공산액(工産額)! 작년중함남도산업과의 통계를보면 일년중공산액(工産額)은 일천삼백오십오만팔천원팔백오십이원 륙십전이라는 거액으로서 제조호수만도 칠만팔백오십팔호의다수에달한다

종류로보면 장유(醬油)가 제일위로 이백구십만이백사십륙원 일만이천칠십삼호 다음은주류(酒類)로서 일백삼십일만일천오십구원 축산(畜産)품이 일백사십사만오천사백팔십원 직물(織物)이 일백만오천륙백사십사원 유지(油脂)도 오십륙만오백륙십원 수산(水産)품도 일백십륙만일백사십오원이된다

車賃橫領事件
六名送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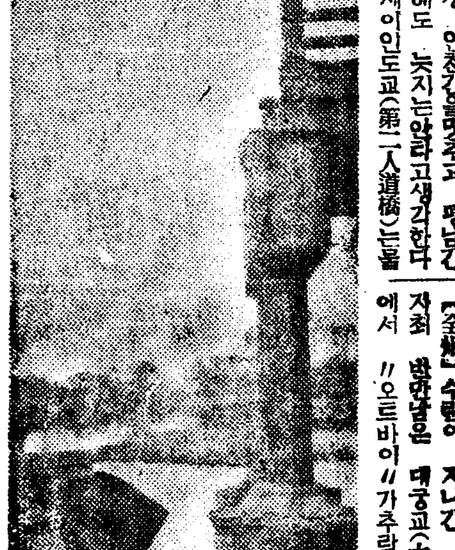
【馬山】긔보=경남자동차주식회사 마산영업소(慶南自動車株式會社馬山營業所)에서 다년간 부내『뻐쓰』를 운전하여오든 운전수 륙명과 녀차장륙명은 승차임금횡령으로 마산서(馬山署)에 검거되여 방금엄중한취조를 당하여온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마산서에서는 검거되지 사일만에 녀차장륙명은 모다석방시키는동시 라지방에가잇는 려대주임들을 착착소환하야 이십칠일까지 모다증인으로서 신문을맛치게되엿다는데 이로써 경찰의사건도일단락을 지어삼십일에는 일건서류와함께 업무횡령죄로 운전수륙명은 모다마산검사분국(馬山檢事分局)으로송국되엿다고한다

災民救濟事業으로
道路、堤堰等施工
工費萬八千餘圓으로

【居昌】경남거창지방은 지난여름에 가혹한재화로말미암아 삼시간에 생도를모조리일코 생사의기로선상에서 다처오는엄동에 주워외긔아에 울고잇는 만여리재민의 그참혹한정상은이미 본지를통하야 루보한바어니와 이를구제키위하야 금번 도에서는 토목비일만팔천여원의 보조금을어더 도로제언 사방공사등을 실시한다는데 주로 리재민을 로임에사용하게됨으로 엄동에 속수무책인리재민에게 일시적도움이되리라한다

半折남은大宮橋에서
"오로바이"가墜落
一名即死、一名은重態

【全州】수많이 저나간 패허의 자최 반절남은 대궁교(大宮橋)에서 "오트바이"가추락되야조종자가 즉사한참사일건(慘事一件)! 지난이십구일 오후네시경에 시내 대화정(大和町)에서 자전차영업을하고잇는 김기문(金基文)(□□)이가『오도바이사이도가』에 전주 소학교장 길전씨를태우고 시내를 일주하다가 대궁교 아플당하자 건너편 교량이 부서넘어진줄을 몰낫든지 그대로 질주를하다가 십륙척이나떠러저잇는 다리아래 돌 조각이널려 잇는곳으로 떠러저 조종자 김기문은 전신에 심한타박상을입고 현장에서 즉사하엿고 엽헤탓든 길전(吉田)소학교장은 면부와 흉부에 중상을입어 목하전주도립의원에 입원치료중 생명에는 별관계가업스리라고전한다 이참사가 이러나자 현장에모여든 수백군중은 이구동성으로 전주부에대한 원성이 자못노파젓다는데 엇재서 이러한 위험한곳에 목책(木柵)을아니하야 반절만남은다리에 차마(車馬)의출입이잇도록 지금까지 방임해두웟느냐는등의 원성이매우놉하젓다고한다



(사진은 慘變을낸半만남은大宮橋)

地方人事

▲辛永達氏(京新學院敎務主任)來京人事次本報新京支局來訪

愛慾의彼岸 【153】

李光洙 作　金康稷 畫

하루는 헤련이가 아버지 방에까지 깨끗이치이고 옷것 베개것을 다 말정하게、손속、새로 갈아서 깔고、그리고 방에는 향수를 뿌리고 전긔등에는 새로운 장식잇는갓을 씨우고 꼿병에 향긔노흔 비한솔사다가 꼿고、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잇섯다。

헤련은 오늘 최후로 아버지께 간하려한것이엇다。거룩나라고、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고。그리고 남저지일생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보내시라고、간하려고 결심한것이엇다。

자정이 지나도 김장로는 안돌아왓다。박게서는 초저녁에는 철느즌 비가 오더니 그것이 착라눈으로 변하고 그리고는 바람으로 변하엿다。따따하고 야경스군의목패 치는 소리가 날때쭐해서는 바람은 윈 천지를 뒤 흔드는듯하엿다。어디서、무엇에서 나는지 모르나 덜그럭덜그럭、푸르륵 푸르륵하는 소리가들렷다。마당에다가 무엇을메다부리는듯한 소리도 들렷다。부자가 다 난봉이 나서 집을 비이고 댕기는 이집에는 바람도더 난동을치는것가탓다。

실상 헤련이가 보기에 이집은 아주빗을 일허버린것 가탓다。그러케 아담해보이고、안복해보이고 빗과 향긔가 빌하던 이집、그리고 윤이돌고 비인구석이 업서보이던이집이 인제는 아주 칙칙하고 씁씁하고 사개가 물러나고 갑재기 낡어빠진것 가탓다。사실상 가을철 잡아서부터는 안사방 사랑할것업시 반자에 부억에 쥐가난동을 첫다。만일 도깨비가 잇다고하면 이런 집에 모혀서 날칠것가탓다。

헤련은 바람ㅅ소리를 들으면서 더욱이 이런흉한 생각을금할수가 업섯다。천정에달린 전긔등조차도 바람도업는데 흔들리는것가티 보엿다。

『하나님。아버지를 건저주시옵소서。주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를 건저주시옵소서。아버지를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올흔의길을 것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헤련은 하나님을 수없이 부르고 주예수의 공로를 수없이 불러서 간절히간절히 긔도를하엿다。

그러나 헤련은 생각하엿다。물에 빠진사람에게 아모리 구원의 줄을 던지더라도 그 사람이 그줄을 자붓지아니하는데는 어찌할수 업슬것이라고。김장로의 오늘의 태도는 정히 이러한것이엇다。그는 하나님이 불러도 그 소리를 아니 돌올것이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잡지아니할것이다。그 마음은돌가티 구더저서 아모러한 일에도 움지기지아니할것이엇다。그동안에 헤련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의 반성과 회심을 빌엇다 울고 그른것을 따저도 보고、『아부지、아부지』하고 정으로 움지겨도 보앗다。그러나 김장로의마음은 항상 돌과 갓고 얼음과가탓다。

『들엇다 애』

하고 픽 웃던 오빠의 말。그것은 아버지에게 대한 절망의말이엇다。그러나 헤련은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버지 한분을 구원하고 시펏다。헤련에게 남은 소망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엇다。그밧게 헤련은 벌서인생의 모든 소망을 일허버린사람이엇다。

오늘은 밤을 새어서라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최후의 간언을 들이기로 결심하엿다。

새로 두시나 되어서、

『문 열어라』

하는 김장로의 소리가 들렷다。

『네』

하고 헤련은 몸소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엇다。

『아버지!』

하고 헤련은 불렀다。

그러나 김장로는 그 말에는 대답도아니하고 비틀비틀 사랑중문으로 들어갓다。

헤련은 가슴에 아픔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아버지보다 압서서 방에 들어가서 쌍창을 열고 전긔등을 끄어서 아버지가 마루에 올라서기를 편하게하엿다。

헤련은 모자와 외투를 바더걸고 옷을바더 어거리ㅅ장에걸것은 걸고 개켜너흘것은 개켜너코 자리미테 깔앗던 조선바지저고리를 내어노코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수통에가서 유리병에 새 냉수를 떠서 유리고뿌와 함께 쟁반에 바처서 아버지 머리마테 노앗다。

『지금 몃 시냐』

김장로는 냉수를 한 고뿌를 거벌게 마시고나서 뭇는 첫 말이다

贈答品には： 明治の菓子

祝 富川支局發展

社交會集 素砂食堂 主 吳鮮模 電話一一番 御注文ノ際多少ニ拘ラズ迅速御配達致シマス

京仁線素砂驛前 朝鮮料理 新成館 主 朴寅玉

京仁線素砂驛前 梧柳釀造場 主 李 電話一二番

吾丁面三井里 高橋釀造場 高橋好見

素砂面素砂里 富興精米所 李允興

京仁線素砂驛前 素砂郵便所長 天野育四郎

京仁線素砂驛前 朴永春商店 主 朴永春

富川郡吾丁面吾丁里 水津義素

素砂面職員一同

富平邑內 萬治釀造場 主 萬治豊吉

京仁線素砂驛前 平和理髮館 主 金 / 平和商店

京仁線素砂 典當舖 主 金奉順

富川郡吾丁面陶唐里 金永龍

素砂 振興商店 主 車泰榮

素砂醫院 金應錫

京仁線素砂驛前 徐貴男代書所

京仁線素砂驛前 劉仁錫精肉店

素砂金融組合 理事 增野虎雄

富平水利組合 理事 柳井傳次郎

素砂 神部正雄

素砂 土肥兵市

京仁線素砂驛前 素砂精米所 電話二〇番

運輸運送業 合資會社素新自動車部 電話二七番

富平邑內 郵便所長 長谷場堯

京仁線素砂驛前 大聖理髮館 主 金富

京仁線素砂驛前 東鮮商店 主 林東彬

富川郡富內面九山里 沈贊燮

素砂駐在所 一同

相信商會 主 朴

素砂驛前 馬場精米所

經濟解說

空前의 大豫算 第二次『인푸레』로 (上)

高橋藏相遭難以後 軍部勢力의膨脹을 抑壓할支柱가 업서지니 所謂時 與論에서 唱導된것은 明年度豫算으로 陸海軍兩省의豫算만이 十五億圓에 達할것으로는 可恐할財政 인푸레不可避라는 企畫이엇다。

其後九個月、二二六事件、廣田內閣 一新의 勢力이 노픈가온데 일어 旨로서 戚力을 發揮하는 軍部에 쫄리면서 馬場藏相의底藏가튼 積極的活動과 大局觀으로 如何間 尖銳한 目前觀으로 간신히 만드러낸 明年度豫算 大藏省原案은 總額三十億四千萬圓이엇다。其中陸海軍豫算의 合計는 十四億圓。地方交付金 二億二千萬圓의 計算을 除하면 二十八億二千萬圓 으로서 十一年度 實行豫算 二十三億一千百萬圓에 比하면 五億二千萬圓의 增加이다。世間의 期待한 豫算의 膨脹보다도 좀 적어진것은 馬場藏相의 手腕이라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明年度만의 일이오 軍事豫算을 이만큼에 끈치게하야서는 十二年度以降 可恐할 膨脹이 約束되어잇슴으로 注意하여야 할것이다。卽明年度豫算은 今後의 加速度的膨脹의 시작에 不過하다

×

昭和七年度豫算이 井上藏相의손으로 十五億六千萬圓이되고 高橋藏相의손으로 十九億四千萬圓으로 改訂되엇슬때、인푸레의 傾向이라하야 多大한衝動을 惹起하얏는데 그七年度 當初豫算의 二倍를 넘어 前年度보다의 增加額이 七億三百萬圓이라는 膨脹이다。그러나 世間은 이것을 驚異로하고 놀라지안는다。軍部로부터 인푸레로 熱狂되어第一次인푸레에서 第二次인푸레로의 飛躍은 이압흘 新局面에相當한가 새삼스러웁게 感케한다

그러나 明年度豫算中에는다만 이豫算의 膨脹뿐이아니오 歲入에 關하야서는 制期的增稅이오 이에應할 經費論上 其他모든增收策、地方交付金외 創設、公債增發의 消化可能性、稅收에 關하야서는 軍事費의 膨脹과 軍需工業能力、其他國策의 實現如何、都市와 農村의 問題等第一次인푸레舍에의 重大한 諸問題가 包含되고 超非常時 日本의 困難을 數字的으로 表徵하고 잇는터이다。

×

그러면 第一로 豫算總額의 膨脹이다。三十億四千萬圓이라는 數字가 日本財政史上空前의記錄인것은 말할것도업는데 이 增額이 主로서 陸海軍豫算의 그것에 負한것은 左表를보면 一目瞭然하다(單位百萬圓)

	十二年度大藏原案	十一年度實行豫算	比較增
豫算總額	三〇四〇	二三一一	七二九
陸海軍省	一四〇〇	一〇六〇	三四〇
其他各省	一四二〇	一二五一	一六九
地方交付金	二二〇	—	二二〇

有外가러 豫算一新의 國策대로 增加한 金額가 겨우 一億七千萬圓(그것中에는 國債利子의增加와가튼 義務費도相當히 包含되어잇다)에不過한데 軍事費는 三億四千萬圓으로도 그二倍인三億四千萬圓이 나놧다。陸海軍豫算을 나우어보면(單位百萬圓)

	十二年度	十一年度	比較增
陸軍省	七二〇	五〇八	二一二
海軍省	六八〇	五五二	一二八

이것을보면 陸軍의 經費가膨脹하게된것이 눈에띄운다。無條約下의 海軍보다도 在那의 戰線을 前提로 在滿兵力、航空隊의 擴充、資材整備의充實을 目標로 六個年二十二億圓의 大計畫을 要求하는 陸軍의膨脹가 結果的으로보아 實現하얏섯다。그러고 陸軍豫算은 十三年度부터는 九億台로 되고 海軍도 이에 準한다 하니 來後年度부터의 軍事費는 實로 十八億圓으로 飛躍할것이다。

政界에서의 軍部의힘은 이 數字에依하야 實證되는터인데 이러한 莫大한豫算을 今日의 日本工業能力이 消化할수잇슬가가 第一로問題된다。昨今 軍工業方面의 增資擴張 모든 當局의 保護助長策이 專혀 때문이오 이것을 目標로하고 잇는터인데 이豫算의 實行이 經濟的立場으로 만보아도 日本經濟의 軍工業中心에의 編成을 强制하고잇슴이 明瞭하다。

×

明年度豫算의 總增加額으로 付金關係를 除한 五億二千萬圓인데 이미 陸海軍만으로보면 來後年度는 三、四億의 膨脹이 豫定되어잇고 其他國策을加하면 四億乃至五億의 膨脹이 當然해진다。이러한大豫算을 施行함에當하야서는 物價騰貴를 招來케되고 更히 增加率은크게된다 從하야 三十億四千萬圓의 明年度豫算은 來後年度 三十五億 이어서 四十億으로 飛躍하여갈必然性을 含함으로 그中에準謄하고잇다 第二次일 인푸레에의 『스타-트』라는 所以가 이곳이엇다。이러한情勢下에 財界가 어떠케 變化하야갈가 큰轉回點은 具體化하고 日에 日에 울르게되는것이다。(계속)

十六年度까지 絕對增稅안켓다
公債도 十億圓限度確守
藏相·閣議서言明

【東京電】馬場藏相은 二十七日閣議에서 將來의 財政計畫에 對하야 如左히 重大說明을 하얏다。

十二年度豫算編成에 際하야서는 從來의 公債漸減方針을 放棄하얏슴으로 十二年度公債發行豫定額은 前年度에比하야 增加되엇스나 公債發行의 限度 十億圓의 原則에 依하야 九億六千萬圓에 止하얏다。後年度의 公債政策은 今後五個年卽 昭和十六年度까지는 十億圓의限度를 確守하고 絕對로 增稅치안흘 方針이다。公債發行은 大體昭和十七年度는 八億圓程度 同十八年度는 七億圓程度로 十七年度以降은 漸減方向을 示할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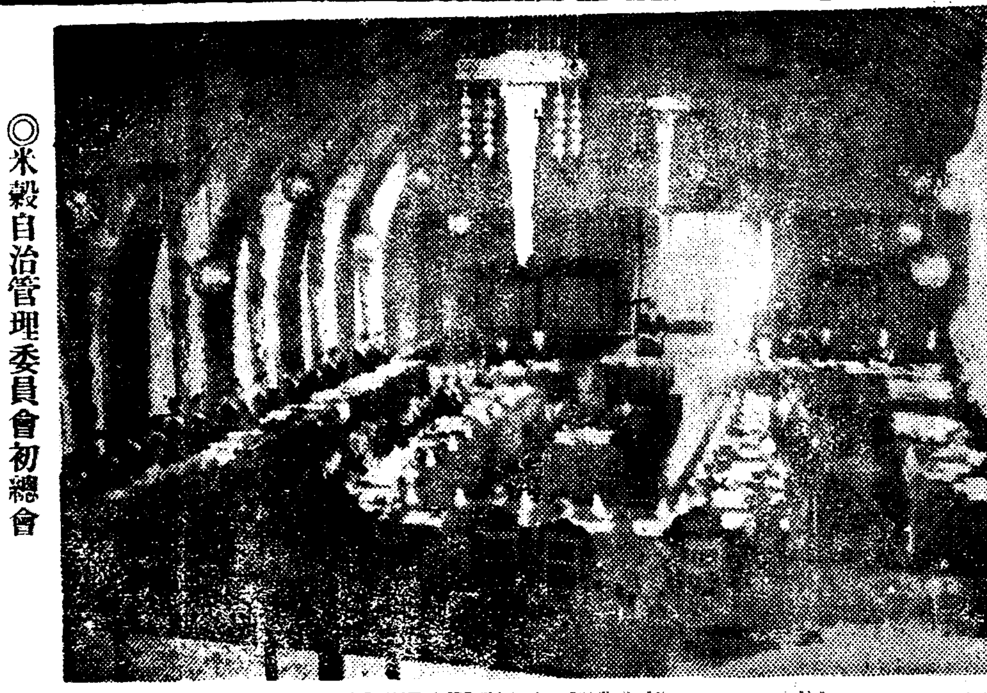
自管法은發動안는다
肥料統制는來月中旬까지決定
◇……矢島農林局長 談

米穀自治管理의 折衝을 비롯하야 肥料統制法其他를 協議키 爲하야 十一月初부터 東京에가 잇던 矢島農林局長은 廿九日歸任하얏는데 米穀問題 其他에就하여 如左히말한다

▲自治管理法發動＝自治管理諮問委員會에서 今年度의 內外地를 通한米穀需給推算은供給量에서 消費持越을 除한 三百五十一萬三千石으로 認定되어 過剩米의 發生을 본터이나 目下米價가 高地位에 잇슴으로發動치안는다 그러나 米價가 發動範圍內에까지 떠러지면 直時委員會를 開催하고 發動하기로 協議가 成立되엿다 이것은 第一次의 生産者團體에서 行할것이다 그러나 日本內地에서도相當히 移入不足이 指摘되어잇고 朝鮮의 正租品質不良이 米商側의 强氣材料로 되어잇슴으로 米價의 下押은 생각되지안는다

▲朝鮮米穀對策＝自治管理가 上述과如한 狀勢임으로 鮮內의 對策으로서 愼重을期코저한다 米穀應急低資에 依한調整은 例年대로 하겟스나 短期米貯藏(安米換算 三十四萬石)의 實施는 硏究할 豫定이다 今後自管法이發動하면 最上層의 强制로될念慮가잇는때문이다

▲肥料統制問題＝日本內地의統制進行이 目下民間團體의 손으로進行되고잇서 서로意見를 纏하지못하얏다 朝鮮의配給問題도 日本內地의組合側이 크게諒解하야주지 안흐면 出發前에알게되어 서로諒解하여야겟다 殖産局長이滯京中임으로 折衝하는터인데十二月中旬까지에는大體결정이날것이다



◎米穀自治管理委員會初總會

【東京】米穀自治管理委員會第一回總會는 二十六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한바 寫眞은同會席上廣田會長의인사

프레미암目的
證券投機流行

最近의 朝鮮內 有價證券熱의 昂進은 放資보다도 投機思惑이 主潮가 되어잇는것은 旣報와갓거니와 最近 增資를 圍繞코 프레미암目標의재미럽지못한 動向을 招致하고잇는것은 不健全한 動向이라고 關係側에서 注目하고잇다 卽最近의 例로는 最著 全羅鑛業의 增資株、目下賣出中인 親和木材株가 그것이오 事業內容을 檢討한 增資株應募보담도 프레미암을 겨누는 應募가 壓倒的으로 多數를 占하고 잇다 그러나 압서 全羅鑛業은 其後 會社內容의 悲觀으로 一個月未滿에 프레미암은 解消되엇고 今回의 親和木材도 말하자면 一種의 請負林業會社임에 不過하다 如斯한 動向은 健全한 有價證券投資를 그릇치지안흘가 危懼되고잇다

經濟寸鐵

○公債發行限度는 十億으로、今後五個年間은 絕對로增稅치 안켓다고 藏相이 閣議서 言明

○무슨배ㅅ속으로 이번소리를 하는지모르나 우선十二年度豫算이나 通過해노코 볼일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떠들나고 다른閣僚들이 내버려둔모양

經濟界消息

○朝鮮送電總會＝朝鮮送電에서는 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本社에서 第十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第十期諸決算案承認과利益金處分案件
二、辭任監査役田淵動氏에게 慰勞金贈呈件
을附議한結果、五分配當案을可決 二號案은 重役會一任決定

○都市經營總會＝朝鮮都市經營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半부터東拓會議室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한結果 八分配當(二分增配)案을 異議업시 可決

○長津江水電은 一躍五千萬圓을 增資하야 資本總額을 七千萬圓으로하리라고

○朝窒과 아울러 朝鮮의 兩大資本會社가 되는모양

○朝鮮石油會社를 맨들고 內地三社더러 물너가라고하나

○旣得權을 내세우고 總督府말을 듯지안코 버티고잇서말성거리라고

○總督府命令을 안듯는사람도 잇스니……

硫安公定價
內外一本決定
石室過燐酸도將次統一

重要肥料統制法의 朝鮮施行에當하야 그基幹이될 公定價格을如何히할가 特히 內地公定價格과의 格差를 如何히할가 格差如何의 問題는 業界는 勿論需要側에 直接利害關係가 크니만큼 重大視되는터인데 過般來 矢島農林局長 殖産技師等이 渡東하야 中央과 折衝하고 總督과도 懇談한結果 原則으로서 日本內地와 朝鮮間의 公定價格은 共通으로 하기로 決定하고 其中硫安의 公定價格은 最初부터 一本價로하기로 되엇다

一、硫安은 朝鮮內生産이 需要를 超過하는 狀況이오 그生産費도 合理的經營으로 內外間의 公定價格은 一本으로한다

一、石灰窒素는 目下 朝鮮內의 需要가 不均衡을 免치못함으로 十二年度는 若干日本內地보다 格差를 認하고 이것을 運賃으로 看做하되 十三年에는 朝鮮內의 工場에서相當한 生産이잇슴으로硫安同樣으로함

一、過燐酸은 現在單肥生産需要의十分一로 格差를 生하야 過度期的에는이것을 認하나 朝鮮內工場新設問題도 잇슴으로 이것이實現되면 一兩年後에는統一한다는方針이決定되엇다 從前不文律的으로 各肥에는 朝鮮에格上市勢가잇섯슴으로 이決定은 市場에 큰變化를與할것이 豫想되다 한다

朝銀·殖銀 分野協定
豫備的協議

【東京電】東京에서 有賀殖銀頭取는 加藤朝銀總裁와會見하고 鮮銀對殖銀의 業務分野에 對하야 折衝한結果 어떤程度의 豫備的協議가잇섯든 모양이고 有賀殖銀頭取는 二十八日東京을 떠나京城에 向하얏다。

長津江水電
五千萬圓增資

長津江水電(資本金二千萬圓全額拂込)은 今回五千萬圓을 增資하야 七千萬圓의 資本金으로하기로 重役會에서 決定하고 今年中에 增資株의 第一回拂込를 할터인데 右는 目下着工中인第三發電所와 第二堰堤의 工事費와 虛川江水電의 工事에 充當하는外에 現在의 借入金二千五百萬圓을 償還키爲한것인데 今後虛川江水電工事에 要하는資金은 每年一千五百萬圓을 要함으로 拂込을 順次徵收하는 同時에 一部借入金에依하야 賄하리라한다

殖産契設立狀況
全朝鮮에八百四十五

隣保相助의 精神에基하야 昨年制定된 殖産契令에依한 殖産契는 全朝鮮各部落에 創設되어 共同購入 共同販賣 其他共同事業에 好成績을 示코잇는데一個年間의金融組合指導下에 잇는 殖産契設立狀況은 如左하다

	組合數	契數
京畿	四一	一九二
忠北	一八	九七
忠南	二〇	一一一
全北	二一	六二
全南	二八	五六
慶北	三六	七四
慶南	四	四
黃海	一一	三二
平南	一九	六四
平北	一七	一九
江原	二〇	八三
咸南	一三	一六
咸北	一一	三四
計	二五九	八四五

下旬對外貿易
出超二千六百十九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十一月下旬 對外貿易概算調는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九三、七七二
輸入	六七、五八一
合計	一六一、三五三
出超	二六、一九一
一月以降入超累計	一三四、九九四

取引停止
十二月一日(火) 京城府茶屋町三七 李周和

商況 (卅日)

株式 鈍狀後에 氣

前場軟化 休日을지난今朝의 當地市場은 再昨後場의不勢裡에 大引되엇슴을바더 東新百三十九圓五十錢으로 不變 日産七十八圓九十錢으로不變이오 朝取는 配當落으로 八十二圓八十錢、朝新亦是配當落으로 三十一圓八十錢에 寄付하고 鐘新百八十二圓丁으로 五十錢低 大新七十圓八十錢으로 八十錢高等에 寄付하엿는데 場面은形勢觀望裡의保合이나 軟化模樣으로 東新百三十八圓七十錢 日産 七十八圓五十錢 朝取八十一圓十錢 朝新三十一圓四十錢에大引하얏다

▲朝新三四(寄)三三(引) ▲東新 [illegible]

後場續落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二十錢、日産七十七圓八十錢 朝新三十圓四十錢、等에 續落大引되엇다

年末市勢平凡?

三十億豫算案이 未曾有의 膨大한豫算이 編成되어 增稅의 重壓은잇더라도 財政인플레期待와 低金利繼續底繼承等으로 今月末로부터 年末까지에 大市勢를展開할것이아닌가하는 觀測이 만혓섯는데 日獨防共協定發表前後로부터 市勢는 惡化하야 低迷商狀을 擴張할것이오 아직은 高價를回復할것가튼 兆候는 조금도보이지안는다 이는 取引所稅率問題로 惡化된人氣가 容易히 恢復되지안는때문이겟지만 박그로日蘇關係의前途를 매우悲觀視하는 空氣가 濃厚하고 게다가 綏古形勢重大化와 關東軍의 重大聲明으로 一般은 事態를 注視하지안흘수업시되어 買氣는 益益萎縮되는터이라 幾分軟化하는 場面을 보이고 잇다그러나 軟派로서도 여긔를 追擊할勇力은업는모양으로 突込은 警戒되고잇서서 軟保合氣槪 材料的氣配에 눌려서 모양으로 나간다면 或은一般이期待하는 年末市勢는 結局오지안코 平凡裡에越年할는지도 알수업다는商談이不少한것은注目된다

對蘇株를賣叫

東新氣迷와함께 株株動向이特히注目되는 勿論인데 大阪短期는 今朝에 東新、日産、帝人、同新、日魯가 配當落으로 各各一三〇、二九〇、三〇〇、一九〇、一二七〇 低로 寄付햇는데 配當付諸株中에는 레온株를 爲始하야 堅調를 보이는것도 잇스나 槪略軟弱하야 前日에比하면 모다 三十錢의 低落이며 實物도 連日 軟保株에 對蘇關係株만이 賣叩되어 日魯新이 三四一〇、北樺油 四一一〇、同新四五〇의 低價를 보엿고 朝鮮關係의 全羅鑛業도 一二〇五〇으로 不勢이며 日滿아루미新도 二六六〇의 伸値로 軟弱하엿다 比較的强味를 보이는것으로는 東京人絹이 配當落인데도 五三〇〇內外인것과 데질이 一七三〇으로 頑强하고 人造肥料新의 一四一〇等이 注目될뿐이엇는데 要컨대 依然區區한 部分的 高下에끈치고 總體로는 無力하야 材料만잇스면 賣叩되고잇는것을보면 玉整理가 繼續中임을 窺知할수잇다

日레는新高價＝數日前부터

日레는買氣가擴頭하야 再昨前場에는 八十二圓八十錢의高價를보고 實物新株도 二十九圓六十錢에 昂騰햇는데 今朝大阪短期의日레는 寄付에八十三圓二十錢으로 이는 前者 二分增配說을 唱道하고잇든 同社業績이極良好하야그 收益力의增大로부터 割低視되어 物色的買氣가 集中되는데 基因한것이다

六感

……日蘇關係好轉豫想에서 買進되 對蘇株는 바야흐로一大反動時期에 直面▲一進一退는物理學的現象이라고는하나今後容易히 回復을바랄수업는점 ▲目前은 不安이나 今回의投物로서 짐이가벼워저서 意外로東新이 年末에 活氣를띨는지 누가아오?▲下旬貿易은二千六百十九萬圓의 出超로中旬入超를補塡……

(米)……今日은 終幕을告하는 最後一日! 兩方의決戰도何等의勝負가업시 當地는四十錢臺에서 阪地는三十錢臺에서 細刻步調를示하고 東京은六十二錢의同事로終始 ▲大體今月은保合月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니다 總波動이 九十餘丁에不過 ▲一萬四千餘石에 達하는當地當限은 今前場에까지 整備를完了하엿다고 時期가時期인만치그만큼 渡米가 整備되엿스나 ▲受米側은 劉某를中心으로하야 三人組라는說도잇다 受米만으로勇敢하지만은 今後의處分이關心거리

期米 少弱裡에 納會

前場伸腦 再昨後場阪地二十九圓三十四錢止와 共히 二十七圓四十三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一休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二十九圓三十一錢인 二丁低를 據하고 二十七圓四十錢인 三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二節三十一錢으로 三十五錢에 納會함을 伴하야 最高四十四錢으로 四十一錢에場을 止하엿스며 後場은受渡로例休이엇다

今月은保合月
充分底價鍛鍊?

今年은 六月의天井을넘게後 因而低落勢에 入하야 去十月初旬까지의 最低價를示한後 底迷의 狀態로 三錢의 最低價를示한後 一張一弛의 狀態로 保合裏에서 連日을經하고 本月에入한後에도 最低二十七圓丁 最高二十七圓九十四錢 卽百丁未滿의 保合으로 昨今에至하야는 二十七圓四十錢을中心으로 殆히 膠着狀態를 못하고잇다 卽六月부터十月初旬까지의 前後五個月間 續落을告한後인만치 一、二個月間保合은 잘아리市勢의 原則으로서 當然하다고 볼수잇다 卽今月은 新米出廻期에 直面된時期임에도例年과細히 出廻가 旺盛하지못하고 도消費見것도 持主의低價의不應으로 實買가 極히零細하야 正米市勢도 不伸不振의固定狀態를보이어 本月은全혀 保合에終始하엿슬뿐인데 來月은또한어떠한市勢를 演出할것인가를 一考하면 正米의出廻가 刻一刻으로 壓迫을加하는時期에 到達하여옴으로 伸滿底迷로 此一年을 보내지안흘가한 商談이多하다果如何?

新甫發會豫想
同鞘說이有力

明一日에發會될 新甫一月限은 減鞘期인 越年後一月에 納會되는限月인만치 依例히 上鞘發會일것으로 豫想할수잇스나 그러나本年은 産地의 出廻가昨年보다一個月이나 遲延된 關係로例年의 一月限과 同樣으로 볼수잇다 卽今月二日에 發會된一限이例年十二限의 同鞘일 會이엇슴을보아 二限의 同鞘일 것을도히 豫測할수잇다 勿論時期의關係로보아서는적어도一、二十丁上鞘가 當然하다고 할수잇스나 越年後에야 出廻가旺盛할것으로보아서 一時實勢威壓의市勢가 잇슬것을 豫測함으로써이다 卽自營의米價가 어느程度까지低落된後에야 비로소 發動하게될모양이오 政府當局으로서는 三百五十萬石의過剩米가잇다는條件아래반드시自營을發動케할方針을 取하고잇슴을보면卽爲政者의腦首가軟弱하다고 볼수잇스며 從하야 來十二月中旬에 公定米價를 決定한後 卽越年後에自營을 實施하려할에留意하고잇슴으로 明年一、二月에어느程度까지의 落市勢가 잇지안흘가하는 觀測아래 上鞘로發會될 一張도同鞘의程度로보는모양이다

各地新甫鞘豫想

▲大阪―無鞘又는 十丁上鞘▲東京―無鞘▲神戶十丁又는 二十丁上鞘▲下關十丁上鞘▲名古屋無鞘又는 十丁上鞘▲仁川―十丁又는 二十丁上鞘▲群山―無鞘又는 五錢下鞘▲釜山無鞘又는 十錢上鞘▲大邱十錢又는 二十錢上鞘▲木浦無鞘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限 / 先限) [illegible]

今日財界 三十日

◆米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二低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一滿低
仁三等米 一石	[illegible]	四低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AQ	[illegible]	五厘低

◆株 朝取 / 東新 / 日産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illegible]

朝鮮織物拂込徵收

朝鮮織物會社에서는 今回現在의 織機 四百三十臺를 六百臺로 增加하야 千二百三十臺로 大增設하기로되어 그工場에 要하는 基地는 이미 買收하얏스며 增設資金은 同社新株第二回拂込로 充當하기로하야 十二月七日의 株主總會에서 決定할터인바 株主의 意見을 들은後 增設着手는 明春初의 豫定이다

實物前場取引

▲大同鑛業 六六五 ▲朝鮮紡織 [illegible] ▲全羅鑛業新 [illegible] ▲浦項 [illegible] ▲帝國新 [illegible] ▲人造肥料新 [illegible] ▲滿洲電信電話 [illegible] ▲日本化學新 [illegible] ▲日本綿花新 [illegible] ▲日本石油 [illegible] ▲大日本製糖 [illegible] ▲北樺太石油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取引高 三三〇枚)

月末整理商狀으로 無活氣裡이오 市勢도 거의變化가업섯는데 實物市場에는 年末金融의 季節的豫想으로 低價는 조금식買物이잇서 五錢乃至十錢高이오 米貨價도 西高와 國債强含으로 六分半一圓二十錢、五分半一圓高를 告하엿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二〇 ▲一回四分利 一〇〇·三〇 ▲二回四分利 一〇〇·八〇 ▲佛貨 一九五·三五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一五 ▲第三五分 一〇〇·七 ▲一回四分 一〇一·〇三 ▲二回四分 一〇一·〇三 ▲佛貨四分 一九五·二五 ▲米貨六分半 三四九·六〇 ▲滿洲公債 一〇〇·一〇

各地正米

京城氣崩 朝商觀으로 日本內地取引은 거의 皆無의 狀態이며 氣配가되엇다 定期低로 四十錢低 ㊀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 二一、五〇

仁川低落 定期의 大受渡 納會로 氣配弱含인때에 依然한 日本內地不買로 氣迷人氣가 去(?)益濃化하야 氣配四十錢低落을 告하엿다 ㊀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 二一、六〇

釜山好調 定期軟調이나 移出米側에잘 買進되어 休日後의 大量買物도 相當히잘 消化된模樣으로 市況은 極히 好調이나 月末手當一巡에 高價는 警戒되어 市勢는 休日前價와 不變이다 ㊀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 二一、〇四

大邱軟弱 實行停頓狀態로 氣迷人氣가 기피 氣配十錢軟化하엿다 産地는定期低를 듣고도 低價에는 極力賣惜하고잇다 ㊀三等二七、八〇 四等二七、五〇 一等白米 二三、〇〇

群山崩落 定期軟弱과 輸이잇섯는데對하야 環境不勢로 産地는 再次 軟化模樣으로 唱價三十錢崩落하엿는데 阪神方面의 沈默으로 市勢는 不振이다 ㊀三等二七、五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 二一、九〇

木浦瓦落 定期低와함께 産地所持의 實急物이 現出하고 兼하야 日本內地不買로 買方의 傍觀이되어 人氣는 急惡化하야 一部所持의 時價賣物等이 加하야

康益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

米 期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仁川 期米 大 マルダイ ヒリトキテン

株式 期米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株式 三十日

市勢는 一擧에 五十錢瓦落이엇다 ㊀三等二七、九〇 四等二七、六〇 一等白米二三、〇〇

◆朝取短期 (寄付 / 大引 / 高値 / 低値): 朝取、朝新、鐘新、大新、東新、日産、同新、日魯、同新 前後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賣方 / 買方 / 取組): 朝取、朝新、同新、大新、東新、鐘新、日産 [illegible]

◆東京短期 (寄付 / 大引 / 高値 / 低値): 東新、日産 前後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東新、日産 [illegible]

◆東京現株: 東株、殖銀、鮮銀、滿鐵 [illegible]

◆株價 受定代引日步: 朝取、朝新、鐘新、大新、東新、日産、同新、日魯、北紙、拓新、日鐵、同新、帝人、滿新 [illegible]

◆大阪短期 (寄付 / 大引 / 高値 / 低値): 大新、鐘新、日産、東新、新新、日鐵、帝人、同新、日魯、鐵日、日魯、調査、郵船、東電 前後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東新、大新、日産 [illegible]

◆大阪長期: 東株、鐘紡、大株、日糖、郵船 [illegible]

◆大阪短期: 東拓、富士紡、東亞 [illegible]

期米 三十日

◆朝取期米: 當限 中限 先限 一節—十節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取組高、中、出來高、帳入高 [illegible]

◆大邱期米: 當限 中限 先限 一節—十節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一節—十節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日本米、朝鮮米 上、中、下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 玄米 白米、朝鮮 玄米 白米、台灣 白米 [illegible]

◆東京期米: 當限 中限 先限 一節—八節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名古屋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圓): 京城、仁川、大邱、釜山、群山、木浦、新義州、元山、咸興、馬山、平壤 一等 二等 等外 [illegible]

◆木浦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一節—十節 [illegible]

金融 三十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塊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三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三十日
◆京城綿布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價 [illegible]
◆綿油市價 [illegible]
◆鐵物市價 [illegible]
◆日本製粉市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滿洲砂糖 [illegible]
◆大豆粕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價 [illegible]
◆大豆 ◆豆油 ◆豆粕 [illegible]